metro

메트로 2014년 11월 5일 수요일 제[illegible]호 www.metroseoul.co.kr

담배 폐기물부담금 3.5배 인상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환경부도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을 7원에서 24.4원으로 3.5배 수준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를 비롯해 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폐기물부담금, 부가가치세 등 5가지의 세금이 붙는다. /손진영기자 son@

'직무 맞춤 전략'…취업 문 열린다

기업, 토익점수 높고 단순 스펙 나열엔 관심없어
실무에서 성과 낼 인재, 입사 성공 키워드 부상

"직무 맞춤 전략으로 취업관문을 넘어라."

난공불락처럼 여겨지던 올 하반기 공채를 통과한 취업 선배들의 충고다. 구직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스펙도 직무와 연관 없으면 취업전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스펙이 부족하지만 직무 관련 경험 덕분에 취업문을 쉽게 열었다는 성공담도 나왔다. 전문가들도 불필요한 스펙에 투자할 시간에 직무경험을 쌓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솔섬유에서 유니클로 수입 업무를 맡고 있는 신입사원 오승호(26)씨는 직무 중심의 구직 준비로 소중한 '취업 1승'을 올릴 수 있었다. 한국외대에서 일본어를 전공한 그는 일본어 능력시험 JLPT 1등급 이지만 어학 연수 경험은 없다. 학점은 4.5만점에 3.8점, 토익은 800점대 중반이었지만 취업이 어려워 한학기 졸업 유예를 하기도 했다. 여군계 비유파파 출신이 해외영업팀에 합격할 수 있던 이유는 직무 맞춤 전략 덕분이었다.

오씨는 "취업 실패 원인을 분석하면서 스펙 쌓기보다 기업과 직무를 공부하기로 했다"며 "최종 면접에서도 '옷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라', '우리 회사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하라' 등 지원 회사와 직군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밝혔다.

게임회사 파티게임즈의 기획자로 입사한 김지수(25)씨는 "경력 전공지는 게임 업계와 안 어울린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게임 관련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다. 학교와 전공, 토익 점수보다 직무 연관성이 합격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직무 중심으로 구직 전략을 변경한 후 취업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와인수입사 금양인터내셔날의 신입사원 박연지(26)씨는 "업종과 직군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원했을 때는 결과가 늘 안좋았다"며 "홍보회사 인턴 경험을 쌓고 식음료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원하는 회사의 홍보직으로 입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직무 맞춤 전략'이 취업시장의 핵심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각종 조사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잡코리아가 최근 기업 인사담당자 5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서류 합격 여부를 가장 많이 좌우하는 항목은 '경력 사항'(57.8%)으로 나타났다. 2위는 자기소개서(27.7%)였다.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어학 점수의 비중은 15%에 그쳤다. 최종 합격이 결정되는 면접에서도 '지원자의 실무 능력 경험' 평가 비중이 48.3%로 가장 높았다.

최창호 잡코리아 사업본부장은 "단순한 스펙 나열로는 서류전형조차 통과하기 힘든 시대다.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 시 직무 중심으로 업무 전문성과 경험을 평가하는 경향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학생들은 취업 전 미리 자신의 직무 분야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무 중심의 경험을 쌓는 것이 막연히 토익 점수 올리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엄만욱 사람인 팀장은 "기업들은 실무에 투입돼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한다. 직무 경력을 보유한 '올드루키'가 신입 채용에서 우대 받는다"며 "목표 기업이나 직무를 설정한 후 그에 맞는 경험과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자동차 등록 2000만대 넘었다

2.56명에 1대 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만대를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만대를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기준 등록대수는 2000만2967대다.

자동차 등록제도 원년인 1945년의 7000여 대에서 69년 만에 2700배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1946년의 2127.1명에서 현재 2.56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2013년 기준으로 미국(1.3명), 호주(1.4명), 이탈리아(1.5명), 캐나다(1.6), 영국(1.7), 일본(1.7명) 등 주요 선진국은 자동차 1대당 인구가 2명 미만이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0만대를 넘은 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15번째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1972), 중국(2002), 인도(2009)에 이어 4번째다.

등록된 전체 자동차 가운데 승용차가 1564만대로 약 78%를 차지한다.

이 중 국산차는 1460만대(93.4%)이며 수입차는 103만대(6.6%)다.

차종별로는 현대 쏘나타 164만대, 현대 아반떼 142만대, 현대 그랜저 108만대, 르노삼성 SM5 85만대, 현대 싼타페 77만대 순이다. 수입 승용차는 제작사별로 BMW 18.9%, 벤츠 16.3%, 폭스바겐 11.2% 등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외에 승합차는 95만대, 화물차는 334만대이며 특수차도 6만9207대가 등록됐다.

전체 등록차량을 사용연료별로 보면 휘발유 차량이 약 960만대로 절반에 가까웠고 경유차가 약 780만대, LPG 차량이 240만대였으며 하이브리드차량과 전기차는 각각 13만대와 2500대다.

특히 하이브리드차량은 2008년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6년여 만에 약 3.6배 증가했다.

자동차 1대당 가구 수는 1995년 1.53가구에서 2010년 0.97가구로 떨어졌다. 대당 인구는 1995년 5.41명에서 현재 2.56명으로 줄었다. /김우리기자 kimwh@

교육혁신 강조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세계은행 교육혁신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해 김용 세계은행 총재, 황우여 교육부 장관 등과 악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창조경제의 성공은 교육혁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유사·중복사업 예산 1687억"

국회 예산정책처 지적… 내년 나라살림 과다 편성 82건

유사·중복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1687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일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한 '201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유사 중복 사업은 사업의 목적·내용과 지원 대상이 유사하거나 동일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지칭한다.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발견된 유사·중복 사업은 총 18건으로, 그 총액은 1687억6000만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30억7700만원(1.9%)이 증가한 것이다.

부처별로 보면 안전행정부가 3건이고, 그외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국방부 등 15개 부처에서 각각 1건씩으로 조사됐다.

최근 4년간 정부 예산안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국회의 시정 요구 사항은 2010년 38건, 2011년 35건, 2012년 32건, 2013년 42건으로 꾸준한 추세를 이어왔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부처별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고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의 정부정책 조정·평가 기능을 강화해 합리적인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비효율적인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처별 예산안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예산 과다 편성이 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 계획 부실 53건, 집행 실적 부진 44건으로 나타났다. /조현정기자 hj@metroseoul.co.kr

'엔저 쇼크' 대응책 하루가 급하다

기자 수첩
김 민 지
<금융시장부 기자>

엔저공포가 다시 엄습해 오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이 지난달 31일 '깜짝' 추가 양적완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는 또다시 엔저공포에 빠져들고 있다.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어 1년간 사들이는 자산을 현재의 약 60조~70조엔에서 80조 엔으로 늘리는 추가 금융완화를 결정했다.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는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을 뜻하는 '아베노믹스'의 연장이자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가 양적완화를 발표한 이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가 달러당 111엔대로 추락했다. 이는 지난 2008년 1월 2일 이후 6년10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4일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 외환시장 개장전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0원대로 내려갔다.

이처럼 엔화 약세의 가속화가 전개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엔저여파로 국내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진다. 반면 우리 상품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수출 주력업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해운업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5.2% 감소했으며, 전자·조선업도 각각 4.9%, 4.7% 역성장했다. 화학·철강·섬유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런 시점에 '엔저 공포'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의 대응책이 딱히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엔저를 선제할 수 있는 금융·외교 등 원·엔 환율을 안정시킬 대책 마련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정부는 금융적 정책수단의 동원에 신중해야 한다. 기업들 역시 자구노력과 함께 가격경쟁력을 앞서는 제품 개발에 힘써야 할 때다.

뉴스&뉴스

새누리 김태호 12일만에 최고위원직 복귀

●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4일 최고위원직 사퇴를 발표한 지 12일 만에 사퇴 의사를 번복하고 복귀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의 혁신과 쇄신, 변화를 위해서는 지도부에 남아서 더 강력하게 앞장서 달라는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경제도 살리고 개헌도 살리는 길이라면 모든 것을 잃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길을 가겠다"고 복귀 배경을 설명했다.

김성근 한화 감독, 7일 청와대서 리더십 특강

● '야구의 신'이라 불리는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김성근 감독이 오는 7일 청와대에서 특강을 한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강연 주제는 '리더십의 조건, 어떤 지도자가 조직을 강하게 하는가'이며 참석 대상은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 직원이다.

캐나다-호주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

● 여야가 호주·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 쟁점없는 민생 경제 법안은 이달 중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무상급식 갈등' 외면하는 지사·교육감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 감사 강행과 거부로 첨예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3일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사진은 무상급식 갈등을 겪는 홍준표(왼쪽) 경남도지사와 박종훈(오른쪽) 경남도교육감이 4일 오후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함께 참석하고 나서 본회의장 밖에서 마주쳤지만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싸늘한 모습으로 피해 가는 모습. /연합뉴스

규제·공기업 개혁 입법 연내 마무리

여 지도부 공동발의 추진

새누리당은 4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개혁 정책인 규제개혁·공기업개혁을 위한 입법을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 경제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 관련 법안을 당 지도부 공동발의 또는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에 당 지도부는 최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김무성 대표의 대표발의로 전체 소속의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발의한 것과 같은 방식까지 염두에 두고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반대,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이한구 경제혁신위원장은 의총에서 "공무원연금·규제·공기업개혁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적 과제"라며 "과제의 성격상 공무원들한테 맡겨서는 획기적 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당 주도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 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특별 법안은 규제개혁을 법률과 제도로 뒷받침해 전문기관에 의해 상시적·조직적·지속 가능하게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완화 적용유예·탄력적용 및 중소기업 차등적용을 통한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현정기자

"모든 신혼부부에 임대주택 공급"

새정치민주연합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홍종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의제는 저출산 현상"이라며 "모든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를 제외하고 매년 10만 쌍에 대해 5~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장기적으로 100만호 정도를 공급하면 이후 국내 모든 신혼 부부가 결혼 즉시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이 보유한 100조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책자동 국민연금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현정기자

관광호텔 지방세 감면 '끝'

정부 관련법 개정안 의결
대형병원 등 세혜택 축소
세수 1조원 추가확보될 듯

관광호텔·부동산펀드·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이 없어진다. 또 대형병원 등에 대한 감면혜택이 축소돼 1조원 가량의 지방세가 추가로 확보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연말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전면 재설계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행정부는 현재 23%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려는 목표에 따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해당하는 감면 규정을 제외하고는 감면을 연장하지 않거나 감면 폭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호텔, 부동산펀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각종 연금공단·공제회, 알뜰주유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아예 없어진다.

대형병원, 새마을금고·단위조합,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혜택은 축소된다.

반면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청소년시설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감면 혜택은 연장된다.

지방세 정비계획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약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이 정부 내 협의를 거치면서 감면율이 올라갔듯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추가로 감면혜택이 연장될 수 있어 최종 지방세수 규모는 불투명하다.

/윤다혜기자 yoh@metroseoul.co.kr

포항 '구룡포 대게' 첫 위판 4일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수협위판장에서 본격적인 대게잡이 철을 맞아 구룡포 대게가 첫 위판되고 있다. /연합뉴스

단감이 탐스러워요 4일 오전 서울 중구 필동 남산골한옥마을에서 농협중앙회와 한국단감연합회 주최로 열린 '2014 단감데이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단감을 손으로 만져보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돌 콘서트 티켓 팔아요" 거짓 글 올려 2800만원 '꿀꺽'

서울 구로경찰서는 조기 매진된 유명 아이돌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한모(37)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한씨는 2012년 10월부터 2년간 유명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개설해 엑소, 인피니트 등 아이돌 그룹과 쇼미더머니3 등 오디션 프로그램의 티켓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총 170명으로부터 28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다른 사람이 판매하려던 유명 아이돌 그룹 콘서트 티켓 예매 내역을 캡처해 올리거나 이전에 실제 구입했던 티켓의 구입 관람 일자를 조작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씨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다혜기자

회사 안 망해도 체임 정부가 先 지급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임금을 못 받은 퇴직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강제집행권만 확보하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자는 물론 재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는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안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더라도 퇴직 근로자가 강제집행권한을 법원에서 받게 되면 정부가 밀린 임금을 300만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4만1000명의 근로자들이 약 1000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다혜기자

유병언 부인·장남 재산 상속포기 신청

민법규정 위배 논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과 장남 등이 법원에 재산상속 포기 신청서를 냈다.

4일 대구 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와 장남 대균씨, 대균씨 자녀 2명 등 4명 명의의 상속포기 신청서가 접수됐다.

신청서 접수는 대균씨 변호인 측이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대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한 것은 유 전 회장의 마지막 주소지가 대구 중구로 돼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그러나 대균씨의 자필 확인서, 인감증명 등 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대균씨 등의 상속포기 의사가 확실한지, 사망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대균씨 등의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지면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상속분이 넘어간다.

한편 대균씨 측의 상속포기 신청이 피상속인(유 전 회장)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민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 가정법원 측은 "유대균씨 변호인측이 '유 전 회장 사망을 국과수가 최종 확인하고, 대균씨가 아버지 사망을 인지한 날이 7월 25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윤다혜기자

"신해철, 금식 안지켜 장 천공"

S병원 "수술과 무관"

고 신해철씨의 사망에 의료사고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대해 신씨를 수술한 S병원이 4일 "부검 내용만으로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S병원 측 담당 변호사는 "수술 후 이틀간 입원해 있을 때는 상태가 괜찮았는데 이후 외출·외박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했고, 그래서 (장이) 터진 것 아닌가 싶다"면서 "수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씨의 심낭 내에서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된 데 대해서는 "원래 먹어선 안 될 음식물을 드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신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 축소 수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예전 위밴드 수술 때문에 생긴 유착이 위 주변에서도 발견돼 봉합 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8~9일께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다혜기자

2015년 '양의 해' 우체국 연하장 출시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은 3일부터 우체국에서 2015년 을미년 우체국 연하장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연하장은 고급형 3종(1장 1200원), 일반형 5종(900원) 등 총 8종이다. 양의 해를 맞아 양을 주제로 다양한 연하장을 선보였다.

우체국 연하장은 봉투에 우표가 인쇄돼 있어 우표를 따로 붙이지 않아도 된다.

전국 우체국 및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서울여대, 7일까지 아르헨 문화 행사

서울여대는 7일까지 교내 조형예술관 바롬갤러리에서 아르헨티나 문화 체험 프로젝트 'Hola!! 아르헨티나'를 개최한다.

행사는 전통 댄스 공연, 미술 먹거리 주제 문화 세미나, 현대 미술 전시 등 아르헨티나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 코너로 이뤄진다. 또한 서울여대 부속유치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11월은 '수염의 달'

metro France

남성암 환자 돕기 캠페인

프랑스에서 남성암을 겪는 환자들을 위한 '수염 캠페인'이 화제가 되고 있다.

3년 전부터 프랑스에선 11월을 '수염의 달'로 정했다. 전립선암, 고환암 등 남성암 환자를 돕는다는 취지에서다.

◆ 여성도 참여할 수 있어

캠페인 방식은 간단하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11월 한달간 수염을 깎지 않으면 된다. 물론 참가자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수염을 길러야 한다. 염소수염, 팔자 턱수염 등 특정 모양으로 수염을 길러선 안된다. 캠페인 마크에 나온대로 수염을 기르는 것만 가능하다.

주최측은 "캠페인 마크처럼 수염을 기르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지난해엔 캠페인 덕분에 35만 유로(약 4억6950만원)를 모았다"고 밝혔다.

지난주 금요일엔 낭트의 한 까페에서 캠페인 참가자들을 위한 행사가 열렸다. 수염을 기르기 전 무료로 수염을 깎아주는 행사다. 뿐만 아니라 함께 케이크를 먹고 DJ와 함께하는 파티도 열려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사를로뜨 기자 ·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대중교통 스마트화 확산

metro Brazil

SA lança aplicativo de ônibus em tempo real

브라질에서 교통 서비스 분야의 정보화 물결이 확산되고 있다.

브라질 산투안드레시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앱으로 이용자들은 버스의 정확한 위치와 도착 예상 시간을 알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애플·윈도우 등 여러 운영 체제로 이용 가능하다.

스마트폰 뿐만아니라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리=정주리 인턴기자

美 중간선거 공화당 '강풍'

상·하원 장악 여소야대… 오바마 레임덕 빨라 올듯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을 뽑는 중간선거가 4일(현지시간) 실시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기 임기 국정 수행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의원(임기 6년) 100명 중 3분의 1과 보궐선거 대상을 포함한 36명, 하원의원(임기 2년) 435명 전원, 주지사(임기 대부분 4년) 50명 가운데 36명을 선출한다. CNN 방송 등 주요 외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의 참패로 여소야대 정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은 하원에서 의석수를 더 늘려 다수당 지위를 확고하게 유지할 전망이다. 상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으로부터 6석 이상을 빼앗아 8년 만에 양원을 장악할 것으로 점쳐진다.

상원 선거 격전지로 분류되는 13개 지역구 중 공화당은 웨스트버지니아, 몬태나, 사우스다코타에서 승리할 것이 확실시된다. 나머지 상당수 지역에서도 공화당 후보가 선전하는 모습이다.

상원의 주인이 바뀌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점유한 외교위, 군사위, 금융위 등 '슈퍼 A급'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장 자리가 모두 교체된다. 모바마 대통령은 급속하게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번 선거 직후 백악관 참모진과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대대적으로 교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과거 대통령과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 직후 행정부 고위 관료를 경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간 선거가 끝나면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는 관측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댄 파이퍼 선임 고문과 벤 로즈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이 심각하게 거취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개팔자가 상팔자" 4일 싱가포르에 문을 연 애견호텔에서 견공들이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뼈 모양의 풀장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다. /AFP 연합뉴스

'베이징 APEC' 5대 관전 포인트

FTAAP 구체적 성과 등 주목해야

중국 언론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앞두고 '5대 관전 포인트'를 제시했다.

최근 북경신보는 'APEC의 5대 관점' 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 건설 가능성'을 첫번째 관전포인트로 꼽았다. 중국이 추진하는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FTAAP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움직임에 맞서 중국이 추진 중인 아·태 지역의 경제협력 구상이다.

신문은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를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밝혔다. 뉴욕 경제, 친환경 성장 등을 위해 정상들이 의견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중국 정부가 세계 각국과 추진하는 고속도로, 공항 등 기초시설 분야에서 협력의 청사진이 나올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와 함께 아태지역 주요국 정상이 이번 회의에 총출동 한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신문은 중국이 APEC 회의를 통해 한국, 러시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주변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협력 체제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연회 메뉴와 각국 지도자의 의상 등에 중국 문화가 반영될 것이란 점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라고 신문은 전했다.

/조선미기자

"美 에볼라 환자 130명 추가 발생 가능"

서아프리카서 귀국한 의료진 통해 감염될 수 있어

미국에서 올해 연말까지 에볼라 환자가 최대 130명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재난 전문 예측회사 RMS사는 추가 발병자가 최소 15명에서 최대 13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RMS는 서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를 한 뒤 귀국한 의료진을 통해 발병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예상치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의무 격리 조치를 취한 점자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스이스턴대 연구팀은 입국심사 강화 등의 조치로 추가 발병자가 많아야 8명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팀은 "현 상황을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에볼라가 아프리카와 중동을 거쳐서 인도와 중국으로 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에볼라 환자가 대규모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조선미기자

인턴때 신문 스크랩 했다니까 홍보팀 합격

신입사원 4인방이 밝히는 취업 비법

스펙 보다 직무 연관성 강조해야
업종·직군에 대한 공부는 필수

하반기 공채 전쟁에 한창인 늦가을. 대한민국 최대 오피스 타운 강남 테헤란로에 직장인 4명이 모였다. 업종과 직군, 나이와 성별은 다르지만 모두 따끈 따끈한 신입사원이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의 치열한 취업 후기와 합격 노하우를 들어본다.

/정리=정은혜기자 eun@metroseoul.co.kr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법을 전하기 위해 신입사원 4명이 뭉쳤다. (왼쪽부터)이상욱 티켓몬스터 MD, 박현지 금강인터내셔날 사원, 정재원 파티게임즈 해외 마케터, 김지수 파티게임즈 기획자 /손진영기자 son@

참가자(가나다순/나이/직업)
△이상욱/3?/티켓몬스터 식품전문팀 상품기획자(MD)
△박현지/2?/금강인터내셔날 브랜드팀보좌 사원
△정재원/2?/게임게임즈 퍼블리싱사업실 해외사업팀 사원
△김지수/25/파티게임즈 아이러브 커피스튜디오 연구 기획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은 구직자들이 '묻지마 지원'을 하며 평균적인 스펙을 쌓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취업을 준비하셨나요.

정 무작정 이력서를 쓰기보다 나에 대한 분석을 먼저했어요. 저의 경우 외국어 실력을 살리면서 좋아하는 게임을 다루고 싶다는 결정을 내렸고, 해외파트 직군을 정한 다음 업계 동향을 살폈어요.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은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은데 모바일 게임은 거의 없더라구요.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세계화를 위한 마케터가 되자'는 진로 계획을 세우고 나니 제가 지원해야 할 기업이 추려졌어요. 덕분에 맞춤 구직 활동을 벌일 수 있었죠.

김 취업 목표를 정해 집중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막연한 관심만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합격률이 높다고 봅니다. 업종과 직군에 대한 이해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력서를 넣는 것은 정말 비추천이에요. 저는 게임 업계에서 일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자마자 게임 공부를 했어요. 다양한 게임을 익히기 위해 '현질(아이템 현금 구매)'도 많이 하고, 실제 게임 종사자들을 만나 자문도 얻으니 효율적이었어요.

▶취업 준비에 선택과 집중을 발휘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박 네. 저는 식음료 홍보 전문가 목표를 세워 그 분야만 세밀하게 준비했어요. 취업 준비생 시절에 업종과 직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원서를 쓰니 쉽게 하더군요.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 원하는 회사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이 경력직 신입도 마찬가지에요. 스펙보다 직무 연관성을 더 높게 평가받거든요. 적성 찾는 것이 어렵다면 무엇을 하면 즐거울까를 꾸준히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와 맞는 직무가 무엇인지 치열하게 생각하면 취업 문은 의외로 수월하게 열릴 거예요.

▶탈락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단계가 서류전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의 문턱을 어떻게 넘으셨나요.

정 자기소개서는 경험 위주로 써야 생생하고 신뢰감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끈기를 강조하기 위해 자전거 여행을 사례로 들었어요. 군대 말년 휴가 때 신당 집에서 춘천까지 자전거 여행을 떠났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기 싫어서 14시간 걸려 춘천에 도착했답니다.

박 저도 모든 문항에 구체적인 사례를 넣어서 썼어요. '나는 성실한 인재입니다'라고 쓰는 대신 '홍보회사 인턴 시절 가장 먼저 출근해서 아침 주요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고 표현했어요. 홍보팀 막내가 주로 하는 일이 뉴스를 챙기는 것이라 이 점을 부각시켰어요. 자연스럽게 성실함과 업무연관 경력을 입증할 수 있었죠.

▶면접은 어떻게 대처했나요

이 제가 면접 볼 당시 티켓몬스터 공고 모델에 수지였어요. 그래서 면접 때 '수지 맞은 쌀'이란 상품명을 붙인 쌀 포대를 들고 갔어요. 제가 팔고 싶은 상품 샘플을 직접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토익점수는 없었지만 MD로서 열정을 드러낸 것이 합격 요인이라 생각해요.

김 순발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취미 항목에 '그림 그리기'라고 적었더니 면접에서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어요?'란 질문을 받았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제가 그린 그림을 면접관들에게 보여드렸답니다.

박 지원 회사에 대한 공부도 필수입니다. '우리 회사 연혁과 인지도에 대해 아느냐', '평소 생각한 와인 홍보 방안은 무엇인가' 등 직무관련 질문을 주로 받았거든요. 입사하려는 회사에 관심을 갖는 것은 면접자로서 기본 자세라 생각합니다.

▶하반기 취업 준비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 자신이 무엇 좋아하는지 꼭 생각하세요. 열정적으로 몰두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답이 될 수 있어요.

박 기업 간판보다 직무에 중심을 두고 준비하세요. 취업 활동을 세부적으로 하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이 작은 활동이라도 좋으니 희망 직군 경험을 꼭 쌓으세요. 준비된 맞춤 지원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정 기업문화도 중요합니다. 기업과 내가 함께 성장한다는 느낌이 드는 곳에 들어가야 오래 다닐 수 있어요.

외국어1위 영단기의 인재양성서비스 '취업단기'가 함께하는 생생한 취업Q&A

외우지 말고 진솔한 답변해야 호감

Q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 흔히 면접은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구직자들이 많습니다. 면접은 말을 잘해서 추가 점수를 얻는 자리가 아니라, 감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너무 유창하게 말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심하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또 분위기에 눌리면 힘들게 얻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면접에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위해 모의면접을 통한 연습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보통 면접은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1차 면접은 보통 직무 역량을 판단하고, 2차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인성과 태도를 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면접은 지원자의 '예의'가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면접이란 누구에게나 긴장되고 떨린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감점요인이 없도록 예의 바르게 밝은 모습으로 면접관을 대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 강점을 알고 회사에 대해 많이 알고 준비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이 회사가 나를 왜 뽑아야 하는지, 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자신 있게 어필해야 합니다. 외우듯이 말하지 말고, 면접관을 바라보며 진실성 있게 말해야 합니다.

면접에서는 직무 역량 질문이나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질문이 꼭 있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예를 들고 나름대로의 고민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단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문제에 대한 나만의 해결방법을 제시한다면 면접관들의 기억에 남는 지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단기(www.ereland.com) '여' 제공
정리=이국명기자

여대생 취업을 응원합니다

청년위원회, 5일 성신여대서 맞춤 상담

취업전선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대생들을 응원하는 행사가 마련된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5일 오전 11시부터 성신여대에서 '2014 찾아가는청년버스-자신감 충전! 도시락 카페'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여대생들을 위한 1대1 맞춤형 진로상담, 응원 메시지, 도시락 전달 등으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창업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국제협력단(KOICA)·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7개 기관 관계자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신용한 청년위원장은 "취업준비와 고민에 지친 여대생들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이들의 고민 해소를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다양한 취업 정보와 상담콘텐츠를 준비한 만큼 취업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국명기자 kmlee@

market index (4일)

지표	지수	등락
코스피	1935.19	(-17.78)
코스닥	542.16	(-10.31)
금리	2.10	(-0.02)
환율	1078.10	(+4.50)

뉴스&뉴스

산채의 제왕 '두릅' 맛보세요!

4일 서울 중구 소공로 신세계백화점 본점 농산코너에서 모델들이 하우스 재배한 두릅을 선보이고 있다. 가격은 7800원(100g).

/신세계백화점 제공

대우조선해양 영업익 1350억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3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 1158억원보다 16.6% 늘었다고 4일 발표했다.

매출액은 4조222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3조6587억원) 대비 15.4%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0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9% 감소했지만 올해 2분기 76억원보다는 늘었다.

/김민지기자 minji@

소비자물가 넉달만에 반등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1% 초반대의 낮은 상승률이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올랐다.

이는 지난 5월과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를 기록한 이후 4개월만에 소폭 반등한 것을 의미한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1.6%, 8월 1.4%, 9월 1.1%로 둔화됐었다. 다만 소폭 반등에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5~3.5%)를 여전히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송민지기자 minji@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관수동) 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업·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8~9
독자센터 02)721-9801
2002년 5월 31일 정기간행물등록 서울특별시 가00036

재계, 벤처·창업 육성 생태계 조성

삼성 대구·경북에 100억 지원 결정 선도
SK-대전, 롯데-부산, 한진-인천 지원

재계가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벤처·창업 기업 육성 생태계를 조성한다.

기업마다 지역별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개설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대기업들이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삼성은 21일 대구에서 '삼성벤처파트너스데이'를 열어 대구·경북지역의 창업 기업을 선발해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행사는 삼성벤처투자가 주관하고 지난 9월에 문을 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돕는다.

삼성은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과 부품소재 디스플레이, 패션·콘텐츠 등 3개 분야의 창업 초기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대구·경북 지역에 본점 사무소를 두거나 사업 계획이 있는 첨단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이다.

삼성벤처투자 홈페이지(http://www.samsungventure.co.kr)에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고 1차 심사를 통과하면 벤처파트너스데이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삼성은 벤처기업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연계 사업 기회도 제공한다.

삼성벤처투자는 1999년 설립 이후 15년간 500여개 벤처기업에 1조2000억원을 투자해왔다.

앞서 삼성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창업멘토 지원공간 'C-랩'을 운영하고 대구시와 공동으로 2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 'C-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SK그룹은 최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지원과 성공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SK그룹은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공을 시스템적으로 돕는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대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마케팅 파워, 네트워킹을 지렛대 삼아 벤처기업을 도울 예정이다.

삼성·SK를 포함한 대기업들은 전국 17개 시·도와 손잡고 혁신센터를 세워 벤처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CJ-서울, 롯데-부산, 한진-인천, 현대중공업-울산, 현대차-광주, KT-경기, 네이버-강원, LG-충북, 한화-충남, 효성-전북, GS-전남, 두산-경남, 다음카카오-제주 등의 조합이다.

/박상훈기자 zen@metroseoul.co.kr

'엔저 가속' 원·엔 환율 940원대로 4일 서울 명동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환전소로 들어서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이날 서울 외환시장 개장 전 원·엔 재정환율은 2008년 8월 21일 이후 최저인 100엔당 940원대로 내려갔다. /연합뉴스

유료방송업계 'UHD 대중화' 이끈다

UHD 셋톱박스 출시 경쟁 … 소비자 선택권 넓혀

유료방송업계가 잇따라 초고화질(UHD) 셋톱박스를 출시하며 UHD 서비스 대중화에 나섰다.

4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KT와 SK브로드밴드는 지난 9월 1일부터 UHD 셋톱박스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 상용서비스에 돌입했다. LG유플러스는 이보다 한달 늦은 지난달 10일 상용화에 들어갔다.

이처럼 이미 IPTV 업계는 모두 상용화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UHD TV 이용자들은 어느 업체의 UHD 서비스를 이용할지 신청만 하면 셋톱박스를 설치, 풀HD보다 4배 선명한 화질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당초 소프트웨어 형태의 UHD 셋톱박스에서 연내 하드웨어 형태의 UHD 셋톱박스로 전환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형태의 UHD 셋톱박스의 경우 UHD TV 내부에 케이블 업계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방송을 시청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식의 경우 댁내 TV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케이블 방송을 지원하지 않으면 UHD 방송 시청이 불가능하다. 막상 UHD TV를 구매하고도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UHD TV 구매에서부터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제약이 따랐다.

물론 케이블 업계도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삼성전자·LG전자 등 주요 TV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지난 4월 케이블4사(CJ헬로비전·티브로드·현대HCN·씨앤앰)는 공동으로 삼성전자와 UHD TV에 소프트웨어 셋톱박스를 탑재하는 계약을 맺었다.

CJ헬로비전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LG전자와 협상을 통해 서비스를 확대했다. 여기서 한 발 나아가 연내 하드웨어형 UHD 셋톱박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티브로드는 이미 지난달 27일 케이블 업계 최초로 하드웨어형 UHD 셋톱박스를 상용화했다. 티브로드 디지털 방송 고객이라면 누구나 월 3000원(3년 약정 시)만 추가하면 스마트 UHD 셋톱박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출시 기념 프로모션으로 연말까지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반면 씨앤앰은 지난 4월 LG 울트라TV에 소프트웨어 셋톱박스를 상용화한 이후 9월엔 삼성전자 UHD TV에도 서비스를 론칭했다.

현대HCN과 씨앤앰도 UHD 서비스 대중화를 위해 하드웨어형 셋톱박스를 연내 선보일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UHD TV가 치열한 경쟁 속에 가격도 점차 낮아지면서 UHD 방송 확산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

제2롯데월드 천장 균열 논란

롯데 측 "이상 없다"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바닥에 이어 8층 천장에서 균열이 발견됐다.

균열이 발견된 장소는 에비뉴엘관 중앙홀로 건물 내 천장 보가 노출된 유일한 곳이다.

에비뉴엘관 천장은 두꺼운 보들이 얇은 보들을 떠받치고 있는 형태로 그 중 균열이 보이는 곳은 두꺼운 보 부분이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건설 측은 "천장의 균열은 구조물인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이 아니라 철골을 감싸는 내화보드(타이카라이트)의 이음새 부분에 발생한 것으로 건물의 안전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창식 한양대 건축학과 교수의 위험 신호 언급에 대해서도 "해당 교수는 내화보드 마감재가 아닌 구조물인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에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최창식 교수는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롯데 측에 해당 부분의 사진을 요청해 확인한 결과 외부 마감재 접합부분에서 발생한 균열로써 구조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

"연회비 아깝지 않아요"

카드사, '매스티지 카드' 효자 노릇

여행을 좋아하는 직장인 이지영(34·여)씨는 최근 가지고 있던 카드 3장을 모두 잘라버렸다. 엇비슷한 혜택에 흥미를 못 느꼈기 때문이다.

대신 이 씨는 단 한 장의 '매스티지 카드'로 신청해 무료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 면세점 할인 등 3장의 카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에서는 '매스티지 카드'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매스티지(Masstige)'란 대중을 뜻하는 매스(mass)와 고품격·특권을 일컫는 프레스티지(prestige)가 합쳐진 신조어다.

이 카드는 일반카드와 프리미엄 카드의 중간 단계로 VVIP 카드에 비해선 저렴한 연회비를 내면서도 공항 라운지 이용이나 특급 호텔 식사 등 고급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이른바 실속형 프리미엄인 셈이다.

삼성카드는 연회비 20만원으로 실용적인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삼성카드 1'을 선보이고 있다.

이는 회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대한항공 1만 마일리지 또는 아시아나 항공 1만2000 마일리지 ▲본인 또는 동반자 국내선 무료 왕복항공권 ▲국내 주요 호텔 뷔페 2인 식사권 ▲15만원 신세계 상품권 중 한 가지를 매년 기프트 서비스로 제공한다.

현대카드는 일반적인 플래티넘 카드에 만족하지 못하는 프리미엄 고객을 위해 '더 레드 에디션2'를 내놨다.

'더 레드 에디션2'는 연 1회 25만원 상당의 여행과 쇼핑 바우처를 제공한다. 이 가운데 트래블 바우처는 전국의 롯데면세점과 호텔, 골프장, 국내선 동반자 무료 항공권 보험료 결제에 이용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실속형 우량 고객을 위해 '더 베스트' 카드를 출시했다. 이는 국내 특급호텔에서 무료 숙박권을 제공한다. 아울러 대한항공의 일본, 중국, 동남아 노선을 연간 최대 2회까지 무료로 업그레이드해 준다.

롯데카드의 '골든 웨이브(Golden Wave)'는 호텔, 골프, 자동차, 컨시어지 등 30~40대 고소득 남성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업종에 특화된 프리미엄 카드로 국내 40여 개 특급호텔에서 1박 결제 시 추가 1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카드에는 고품격 프리미엄 카드인 '블루다이아몬드카드'가 있다. 이는 국내외 사용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와 포인트가 무제한 적립되며 추가로 보너스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프리미엄 기프트 바우처 서비스로 각종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백아란기자 alin0203@metroseoul.co.kr

하이투자, ELS 2종·ELB 1종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5일부터 7일 오후 1시까지 ELS 2종과 ELB 1종을 총 40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HI ELS 661호'는 HSCEI 지수, EURO STOXX 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자동조기상환형 ELS이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5%(18개월, 24개월), 80%(30개월, 36개월) 이상이면 최대 25.5%(연 8.5%)의 수익을 지급한다.

'HI ELS 662호'는 KOSPI 200 지수, HSCEI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5%(18개월, 24개월), 80%(30개월, 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8.6%(연 6.2%)의 수익을 지급한다.

두 상품 모두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투자기간 중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만기 시에 최초 제시수익률을 각각 지급한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이다.

/유현정기자 hjyu@

수출입기업 초청 외환 실무연수 실시 신한은행은 4일 수출입 기업의 외환실무 담당자를 위한 '우수기업고객 실무자 초청 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300여곳의 수출입 기업 실무 담당자들은 수출입 실무와 외국환거래 규정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신한은행 광교별관에서 기업 수출입 실무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윤 KB금융 내정자 취임 앞두고 고민

LIG손보 인수 지연·주전산기 교체 등 난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이달말 취임을 앞두고 LIG손해보험 인수 지연, 노조 달래기, 주전산기 교체 등 여러 난관에 봉착,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LIG손보 인수 계약에 근거해 거래 종료 예정일인 지난달 27일 이후 하루 1억1000만원씩, 현재 대주주인 구자원 LIG그룹 회장 일가에 계약 실행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지연 이자 발생은 거래 종료의 필수 요건인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이달 12일과 26일 열린다. 그러나 12일 회의에서 LIG손보 인수 승인이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오는 26일 인수 승인을 받고 곧바로 거래 종료 절차를 밟아도 KB금융은 구 회장 일가에 30억원 넘게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 노동조합의 금전보상 요구, 은행 주전산기 교체의 거듭된 유찰 등도 윤 회장이 해결해야 할 난제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행장 집무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특별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노조 국민카드 정보유출 사태로 직원들이 야근, 휴일근무를 했지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당장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말 임금단체협상과 연계해 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사업도 어렵다 할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지난달 31일 마감한 주전산기 교체사업 재입찰은 유닉스 시스템 관련 업체들이 불참하고 국민은행의 기존 메인프레임 체제를 운영해 온 한국IBM만 참여했다. 이는 유효 경쟁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어서 유찰됐다. 이래저래 윤 내정자가 난관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은지기자 ejd@

증권사 두 달 후 콜차입 제한

중소사 자금조달 어려움 가중될듯

증권사들의 콜차입 전면 제한이 두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실적이 부진한 중소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4일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국고채 전문딜러와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사를 제외한 모든 증권사는 초단기 자금시장인 콜시장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콜시장의 신용경색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콜시장에 대한 제2금융권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증권사의 단계적인 콜차입 한도 감축을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전체 콜머니 거래에서 증권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6월 말 19.2%(543조원)으로 지난 2011년 36.6%(2494조4060억원)에 비해 17.4%포인트 감소했다.

국내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콜머니 비중은 지난 6월 말 현재 평균 18.0%로 콜시장 개편안이 발표됐던 지난 2011년 6월 말 평균 28.1%보다 10.1%포인트 낮아졌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콜머니 비중 축소가 두드러졌다.

자기자본 기준 상위 5개사는 2011년 6월 말 21.0%에서 지난 6월 말엔 17.2%로 낮아졌다. 6~10위사는 27.7%에서 20.1%로 줄어든 가운데, 나머지 소형 증권사는 이 기간 38.5%에서 15.0%로 무려 23.5%포인트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에 따라 증권업계가 콜차입을 줄여왔지만 중소형사는 단기 자금난에 봉착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최근 증시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적 부진이 계속된 중소형 증권사들은 콜차입이 차단되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소형 증권사의 구조조정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김현정기자

군인·사학연금도 전면 개혁 바람직

Issue & View 특수직 연금제거

/김현정기자 kdk.mi@metroseoul.co.kr

기금 고갈 직면… 유럽·일본 등은 구조개선 작업 끝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기존 특수직역 연금체제에 대한 전면 수술을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과거 수십년 전 기준으로 설계한 연금체계로는 나가는 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를 정부나 새누리당이 만들면 야당의 연을 바로 내겠다"며 사회적 합의기구가 먼저 설립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이한구 원내대표가 전날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여당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한 데 따른 내용이다.

연금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물론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제계의 개혁을 단행해야 중장기적인 연금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북유럽과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늘어난 평균수명만큼 연금 수령액을 축소하거나 수급시기를 미루는 방식으로 구조 개선을 했다.

프랑스가 지난 2012년 노령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췄고 미국도 사회보장연금 수급 연령을 이처럼 올렸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의 경우 수령 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지난해 늦춰졌고 매 5년마다 1세씩 다시 늦춰진다. 오는 2018년엔 개시연령이 62세가 되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이처럼 구조 개선을 이룬 만큼 특수직역 연금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 국민들보다 직업 안정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구조 개선 방향과 짝에도 궤를 같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말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개시연령이 오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돼 2031년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65세 이상으로 늦춰진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르웨이처럼 연금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수령 시기를 75세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한 국가도 있다"며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노동시장을 손봐가면서 연금 수급액과 수령시기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직역 연금제도가 1960년대 사회상을 반영해 설계됐으므로 현시점에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만 해도 도입 당시 가입자의 평균 수명은 52세였지만 현재는 우려 82세다. 연금 수령 기간이 30년이나 늘어났는데 출산율 저하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저성장 국면 등의 영향으로 연금 운용상 적자를 면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군인연금은 이미 도입 10년 만인 1973년 재정이 고갈되고 연금 중 절반 이상을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연구위원은 또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연금 운용은 별개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우수 운용인력을 채용해 막대한 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조금만 올리면 수익성이 제고된다는 인식을 제기한다.

그는 이에 대해 "운용 측면에서의 접근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대다수 선진국들이 제도 기본틀을 개선해 연금 재정 문제를 해결했듯이 우리나라도 후세대 부담을 고려해 바꿀 것까지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6기 글로벌 자원봉사단 발대식

글로벌 자원봉사단 발대식 IBK기업은행은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제6기 글로벌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기업 ... 건립을 위한 후원금 3억원을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기업은행 임직원 63명으로 구성된 이번 봉사단은 오는 ...까지 4박 ...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학교 신축 공사 등을 도울 예정이다. 권선주(가운데) 은행장과 쏘 르윈(Soe Lwin) 주한 미얀마 대사, 이제훈(오른쪽 다섯 번째) 어린이재단 회장이 자원봉사단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업은행 제공

'확정연금 보증' 변액보험 출시

교보생명 70세까지

교보생명은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면 일정 수준의 이자까지 얹어 확정연금을 보증하는 '미리 보는 내 연금 교보 변액연금보험'을 4일 출시했다.

변액연금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수익에 따른 적립금을 연금으로 주는 상품이다.

채권형 펀드 비중이 70% 이상인 1종 상품의 연금재원은 고객이 낸 주계약보험료에 납입기간 연 단리(원금에 일정한 이자가 붙는 방식)로 5%, 거치기간 연 단리로 4%의 이자를 붙인 금액(최저연금기준금액)이다.

채권형 펀드 비중이 50% 이상인 2종 상품은 납입기간 연 단리로 2.5%, 거치기간 연 단리로 2%가 각각 적용된다.

월보험료는 최소 10만원 이상이며 한꺼번에 목돈을 내는 일시납 방식은 없다. 월보험료가 30만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인액 수준만큼 추가로 얹어서 적립해준다.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김경배 교보생명 변액상품팀장은 "가입 즉시 고객이 장래에 받을 월 연금액이 최소한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변액보험상품"이라면서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소개했다.

이 상품을 개발한 교보생명은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생명보험협회에 신청한 상태다.

/김형석기자

저축銀 대형화 작업 본격 시동

SBI·OK·웰컴-서일저축 등 합병 잇따라

지난 2011년 2월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로 뱅크런 현상을 경험한 저축은행업계가 합병을 통한 대형화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4일 저축은행중앙회와 업계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지난 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OK2저축은행의 흡수 합병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합병으로 OK저축은행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자산 규모 4862억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33.67%의 대형 저축은행으로 탄생하게 됐다. 또 13개 영업점도 보유하게 됐다.

앞서 SBI저축은행은 지난 1일 SBI 1·2·3·4 등 계열 저축은행과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통합법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통합으로 SBI저축은행은 자산 규모 3조8443억원(9월 말 기준)의 업계 1위사로 올라섰다. 또 이달 중 개점 예정인 인천 광주 지점을 포함해 영업점도 전국 20곳으로 확대됐다.

SBI저축은행은 이번 통합을 통해 오는 2019년 6월 말에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4.61%, 당기순익 2328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지난 9월 예성저축은행과의 통합을 완료했다. HK저축은행은 지난 10월 초 자회사인 부산HK저축은행과의 합병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웰컴저축은행과 서일저축은행의 합병 인가안을 승인했다.

이처럼 저축은행들이 몸집불리기에 나설수 있었던 것은 꾸준한 경영정상화 노력의 결과라는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로 지난달 2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가 87개 저축은행의 2013회계연도(2013년 7월~2014년 6월) 결산 실적을 공시한 결과 저축은행 업계의 당기순손실은 495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조1252억원) 대비 56%(6298억원)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3년 전 대규모 부실사태로 어려움을 겪던 저축은행들이 경영정상화 노력과 저금리 속에서 경영효율화를 위해 합병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아직도 연체비율이 20%에 육박하고 있고 고금리 대출에 의지하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

ELB 1종·ELS 7종·DLS 1종 출시 대신증권은 KOSPI200, HSCEI, EURO STOXX50, WTI 금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원금비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 7종, 원금보장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1종,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DLS) 1종 등 총 9종의 상품을 오는 7일까지 나흘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대신증권 제공

"프리미엄·중저가 시장 다 잡겠다"

삼성전자 휴대폰라인업 강화 선언
듀얼 디스플레이 탑재 폴더폰 출시

삼성전자가 국내외 모바일 시장에서 꾸준히 라인업을 추가하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애플이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로 고가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을 진행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4와 갤럭시노트엣지로 프리미엄 시장을, 갤럭시A 시리즈로 중저가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출시해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춰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의 대항마로 내세운 갤럭시노트엣지를 SK텔레콤에 출시한데 이어 이달초 KT와 LG유플러스를 통해 출시한다. 갤럭시노트4와 갤럭시노트엣지로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갤럭시노트엣지는 지난달 한국과 일본에 출시했다. 오는 14일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시장에도 출시한다.

갤럭시노트엣지가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했다면 갤럭시A는 중저가 모델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위한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11월부터 조슈림 등 메탈 디자인의 갤럭시S를 중국 등 일부 국가에 출시했다. 중국 샤오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중저가 전략모델이다.

갤럭시A는 삼성전자가 중저가 시장 성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을 인정하고 내놓은 첫 중저가 전략모델이다. 가격은 메탈 디자인을 채용 도입한 '갤럭시 알파'보다 경쟁력을 갖췄다. 갤럭시A 시리즈는 '갤럭시알파'처럼 메탈 소재를 적용한 제품으로 해상도와 화면 크기에 따라 A3, A5, A7 제품으로 나뉜다. 가격은 30만~50만원대에 형성됐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4일 듀얼 LC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폴더폰 '삼성 마스터 듀얼'까지 출시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꺼리는 사용자를 위해 틈새시장을 노리고 출시한 제품이기도 하다.

삼성 마스터 듀얼은 지난 5월 출시된 '삼성 마스터'의 후속작으로 제품 내·외부에 디스플레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내부에는 3인치 QVGA(320×240)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있고, 외부에는 2.2인치 QVGA LCD 디스플레이가 있다. 외부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폴더를 열지 않고도 시간을 보고, 메시지 수신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현재 위치 정보와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GPS를 지원한다. 가속도 센서를 활용해 평소 운동량을 확인할 수 있는 '만보기', 라디오를 즐겨 듣는 사용자를 위한 'FM 라디오' 등 실용적인 편의 기능도 넣었다. 제품 출고가는 30만300원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 마스터 듀얼'은 두 개의 LCD 디스플레이가 돋보이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사용자 편의성까지 높인 프리미엄 폴더폰"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제품군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성준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 갤럭시A5(왼쪽)와 마스터 듀얼.

"내 근무시간 내가 정한다"

네이버, 책임근무제 도입

네이버가 근무 시간 탄력제인 '책임 근무제'를 내년 정식 도입한다.

직원이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책임 근무제를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내년부터 책임 근무제를 정식 도입할 예정이다.

네이버가 지난 8월부터 시범한 책임 근무제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모바일 시대에 대응해 업무 시간의 경계를 없애고, 직원들이 더욱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책임 근무제를 도입했다.

네이버는 책임 근무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업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면서 업무 집중도와 처리속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정해진 근무시간에 맞춰 일하는 것보다 목표 중심으로 일하게 되는 사례도 많아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책임 근무제를 포함한 네이버 인사제도의 뿌리는 회사와 직원 간의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책임 근무제를 통해 시간이 아닌 성과로 말하는 네이버만의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un@

SKT '웨어러블 전용 요금제 T아웃도어' SK텔레콤은 웨어러블 기기 전용 요금제 'T아웃도어'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T아웃도어 요금제가 처음되는 첫 제품은 삼성전자의 기어S다. 월 이용료는 1만 원이며 음성통화 50분과 문자메시지(SMS)와 데이터가 무제한 제공된다. /SK텔레콤 제공

취업선배 노하우를 내것으로

잡코리아 '취업 멘토링'

취업선배들에게 소중한 노하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좋은일 연구소'는 취업 준비생과 함께하는 직업인터뷰 '연탄프로젝트(사진)'를 보험개발원, 마이크임팩트와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연탄 프로젝트'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각 분야에 종사하는 취업 선배를 직접 만나 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12일에는 보험개발원에 근무하는 공인계리사 김대규 팀장, 18일에는 마이크임팩트에서 청춘페스티벌을 기획한 윤명호 문화기획자가 구직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cafe.naver.com/goodlab)에 가입한 후 신청 게시판에 전공학과와 인터뷰 대상자(interviewee)에게 궁금한 점을 입력하면 된다. 해당 직무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삼성전자 뉴욕 맨해튼에 새 사옥 물색

WSJ "7000명 수용할 수 있는 규모 눈길"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 맨해튼에 새 사옥을 물색하고 있다.

4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전자가 5000~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00만스퀘어피트(9만3000㎡) 규모의 사무 공간을 최근 뉴욕의 부동산 관계자에게 문의했으며 성사될 경우 올들어 맨해튼의 새 사옥 중 가장 큰 규모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 측이 부동산업계인 쿠시먼 앤드웨이크필드를 통해 개발업자와 협의한 사옥 예정지는 맨해튼 서쪽의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와 월드트레이드센터 빌딩 등이 포함됐다.

삼성의 사옥 물색은 초기단계로 맨해튼 이외 지역을 고려하고 있는지 기존 뉴저지주 사옥을 옮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삼성은 뉴저지주 리지필드파크의 23만스퀘어 부지에 미국 현지법인 사옥이 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이리어에는 연구개발과 반도체 부문을 위한 2개 사옥을 짓는 중이다.

신문은 최근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삼성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순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구글과 페이스북 등 성장하는 기업들은 능력 있는 직원을 끌어모으기 위해 뉴욕에 규모 있는 사무실을 여는 추세라고 전했다.

WSJ은 뱅크오브아메리카, 크레디트스위스, UBS 등 대형은행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뉴욕을 떠나 싼 지역으로 옮기는 등 규모를 축소하는 반면 IT와 미디어, 광고 회사가 그 자리를 채운다며 삼성전자의 공간 물색도 변화하는 뉴욕시 경제 판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미국 현지법인 대변인은 "미국 시장의 빠른 성장세로 영업 확대가 필요하다"며 "고객 기반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 규모와 위치, 구조 평가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준기자

해외로 향하는 가전업체

투자·설비 이전 이어져… 수익성 개선 목적, 국내 경제 타격 우려

국내 가전업체들이 수익 창출과 효율적인 생산라인 구축을 위해 해외로 투자와 설비를 옮기고 있다. 해외 생산기지를 통해 환율 변동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인건비도 낮아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일감과 투자 규모가 줄어들어 국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완전 이전이라기보다는 추가 투자거나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재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베트남 최고 지도자인 응웬 푸 쫑 공산당 서기장(왼쪽)이 지난달 1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직접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투자 승인서 전달 행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는 베트남 호치민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에 소비자가전(CE) 복합단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TV를 중심으로 한 가전제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투자금액은 5억6000만 달러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3분기 삼성전자의 CE부문 실적이 다소 저조했던 만큼 인건비가 낮은 베트남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가 국내 생산 시설 대부분을 베트남으로 옮기려는 계획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CE 복합단지 건설도 그 계획의 일부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고호진 삼성전자 홍보팀 과장은 "이 공장은 기존 생산 물량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세계 시장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있었던 베트남 생산기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동부대우전자도 광주공장의 일부 제품 생산라인을 중국 텐진 공장으로 옮긴다. 현재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인데 이중 이전 대상은 소형 냉장고와 소형 세탁기 등 중저가 모델이다. 채경여 동부대우전자 홍보팀 부장은 "양문형 냉장고 등 부가가치가 높은 대형·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 설비를 재편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을 영속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LG전자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량 중 일부를 중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근태 LG전자 HA 기획관리담당 상무는 지난달 29일 3분기 실적설명회에서 "북미로 들어가는 제품의 경우 중국·한국·멕시코 등에서 물량이 들어간다"며 "최근 북미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이곳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생산 물량 일부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나주영 LG전자 홍보팀 차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며 "3분기에 다소 떨어진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HA 생산기지를 일부 중국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인기자 hsune0434@metroseoul.co.kr

마곡지구 오피스텔 양극화

10대 건설사 완판 행진 속 소형은 고전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오피스텔시장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상주인구 16만 명을 갖춘 첨단도시로의 개발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앞 다퉈 공급한 오피스텔이 과잉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특히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에 따른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힐스테이트 에코 마곡나루역 21C타입 내부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곡지구에서 오피스텔을 분양한 시공능력 10위권 내 대형건설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이들 4개 건설사가 공급한 물량은 총 7개 단지 5000여 실 규모다. 모두 90% 이상의 높은 계약률을 보이고 있다.

마곡지구는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소형 오피스텔 위주로 공급됐다. 그러다 지난해 6월 현대엠코(현 현대엔지니어링)가 '마곡 엠코 지니어스타'를 분양해 2개월 만에 완판됐고, 이어 현대건설이 '마곡 힐스테이트 에코'를 5일 만에 털어내며 브랜드 오피스텔 열풍을 일으켰다.

올 4월 대우건설이 공급한 '마곡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 역시 총 510실 가운데 10여 가구만 주인을 찾지 못했고, 특히 B4블록 일대에서 지난달부터 분양에 들어간 3개 단지는 한 달도 안 돼 100% 계약을 앞두고 있다.

먼저 손님을 맞은 B4-2블록 '마곡나루역 캐슬파크'가 100% 계약을 완료했으며 B4-3블록 '마곡나루역 보타닉 푸르지오시티'는 1군 원룸타입 일부만 남아 있다. 지난달 29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힐스테이트 에코 마곡나루역'도 현재까지 90% 이상 계약됐다.

이에 비해 비슷한 시기 공급된 S, P, D 등의 소형 오피스텔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계약률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분양이 완료된 소형 오피스텔 중에서도 일부는 1000만원 정도의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붙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까지는 마곡지구 개발호재에 힘입어 분양만 하면 어느 단지나 다 팔렸지만 물량이 과잉되면서 올초부터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됐다"며 "투자자들은 브랜드 오피스텔이 시공, 유지·보수, 임차 관리 등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뉴 미니(MINI) 5도어 출시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미니 MINI는 4일 뉴 미니를 기반으로 7가의 도어를 추가해 실용성을 강화한 뉴 미니 5도어를 국내에 출시했다.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미니 강남 전시장에서 모델들이 뉴 미니 5도어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 5일부터 '임대주택포털' 서비스

국토교통부는 정부 3.0 및 지난 30일 발표한 '서민주거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 공공임대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포털'을 구축해 5일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임대주택포털은 개별 기관별 분산·관리되던 전국 약 10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통합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누구나 쉽게 공공임대주택의 위치·평형·입주자격·임대료 등 입주정보 및 현황을 찾아볼 수 있게 했다.

임대주택포털이 제공하는 주요 기능에는 복잡·다양한 임대주택을 유형별로 상세하게 설명해 임대기간·신청절차·입주자격 등 궁금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임대주택포털 내 신청자격 자가진단에서 자신의 조건을 체크함으로써 지역별 유형별 입주가능 임대주택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국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지역별·유형별 임대사업자별 검색이 가능하며, 위치·세대수·임대료 등 상세정보와 함께 지도서비스, 로드뷰, 사진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김두탁기자 kimdt@

전국 미분양 주택 1만가구 줄어

지방은 점차 증가 예상

3분기 전국 미분양 주택 가구수가 2분기에 비해 1만가구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해 3분기(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가구수는 총 3만9168가구로 2분기(6월 말 기준) 5만257가구 대비 1만1089가구 줄었다. 수도권은 3만212가구에서 1만270가구가 감소한 1만9942가구, 지방은 2만45가구에서 819가구 감소한 1만9226가구를 기록해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컸다.

3분기 동안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경기다. 경기는 2분기 2만632가구에서 7127가구 줄어든 1만3505가구다. 시군구별로는 김포시가 2159가구로 가장 많이 줄었고 평택시 1546가구, 파주시 885가구, 하남시 820가구, 시흥시 705가구, 고양시 422가구 등 순이었다. 미분양 가구수가 증가한 곳은 양주시 207가구, 부천시 160가구, 의정부시 92가구 등이다.

인천은 2분기 6979가구보다 2339가구 감소한 4640가구로 나타났다. 감소한 곳은 연수구가 1844가구로 가장 많았고, 중구 360가구, 남구 227가구 등 순이었다. 반면 서구는 116가구, 동구는 19가구가 증가했다.

서울은 2분기 2601가구에서 804가구가 줄어든 1797가구를 기록했다. 감소한 곳은 서대문구가 248가구, 마포구 228가구, 구로구 78가구, 성북구 58가구, 성동구 46가구, 강동구 31가구 등이다. 미분양이 늘어난 자치구는 없었다.

지방에서는 경남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이 감소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분양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 재고가 줄더라도 신규 미분양 가구수가 이를 앞지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보다는 분양열기가 다소 가라앉고 있는 지방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두탁기자

정원사 NO! 양떼로 잔디 깎는다

글로벌 이코노미
/조선미기자

미국 오하이오주 어리로 인근 공터에서 양 36마리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양떼 목장의 풍경 같지만 잔디 깎기 작업 현장이다.

클리블랜드시가 참신한 방법으로 도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 눈길을 끌고 있다고 미국 경제매체 CNN머니가 최근 전했다.

특히 정원사 대신 '양떼로 잔디 깎기' 프로그램은 시를 친환경 도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지역 살림까지 알차게 꾸리고 있다. 지역 개발 단체의 바이큐 플레밍 이사는 "정원사를 고용하면 공터를 관리하는 데 4000 달러(약 430만원)가 든다. 하지만 양떼를 풀어 놓으면 그 절반도 안 되는 1500 달러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산업용 부지 등이 많다"며 "전문 인력으로 관리하려면 비용이 엄청나다"고 프로그램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양떼가 적당히 풀을 뜯어먹은 덕분에 4에이커(1만6000㎡) 규모의

/cleveland.com

美 클리블랜드시 이색 프로그램… 시카고 공항은 '임소 일꾼'

호수 옆 공터는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다.

플레밍 이사는 "처음에는 양떼로 잔디를 깎는 일이 잘 될지 반신반의했지만 생각보다 결과가 좋았다"면서 "앞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 부지는 물론 일반 가정의 정원을 관리할 때도 양떼를 활용할 수 있다"며 "정원사를 장기 고용하는 것보다 양 몇 마리를 풀어 두는 게 비용 면에서 저렴하다"고 귀띔했다.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정은미씨는 이에 대해 "양떼로 잔디를 깎다니 참 기발하다"며 "정원이 큰 집에 특히 쓸모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씨는 "잔디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매주 80~100 달러를 주고 정원사를 써야 한다"며 "하지만 양떼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 비용이 주는 것은 물론 그림 같은 잔디 깎기 풍경이 연출돼 감상하는 재미도 있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플레밍 이사는 양떼로 부수적인 수입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의 털을 깎아 팔 수도 있고, 양모에서 피부관리 제품에 사용되는 라놀린을 추출해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홍보 문구를 붙인 재킷을 양떼에 입혀 움직이는 광고 를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한편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은 염소 떼로 공항의 목초지를 관리하고 있다. 공항 측은 지난해 한 레스토랑이 시카고 외곽의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염소 28마리를 일꾼으로 고용했다. 2년간 계곡과 언덕 등지를 이동하며 풀을 뜯는 조건으로 1만9500 달러를 사용했다. 공항의 목초지는 바위가 많고 경사가 심해 기계로 관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MS, 윈도 8·7 일부 판매 중단

내년 하반기 윈도 10 발매 앞두고 정지작업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 8의 소매 패키지 판매와 윈도 7 일부 버전의 PC 탑재 판매를 중단했다. 내년 하반기 새로운 운영체제(OS)인 윈도 10 발매를 앞두고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MS는 지난 달 31일 소매점에서 윈도 8 패키지 판매를 출시 2년여 만에 공식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일반 소비자가 개별 구매할 수 있는 윈도 OS는 윈도 8.1만 남게 됐다.

다만 윈도 8의 지원은 2023년 1월까지 계속된다. PC 제조업계를 통한 판매도 계속될 예정이다.

MS는 윈도 7 홈 베이식, 홈 프리미엄, 얼티밋 버전의 PC 탑재 판매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 버전은 이미 설치된 상태로 출고된 PC로만 구할 수 있다. 단 윈도 7 프로페셔널 버전은 PC 탑재 판매가 계속될 예정이다. 볼륨 라이선스를 하는 기업 고객은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예전 버전을 쓸 수도 있다.

MS의 이같은 조치는 내년 하반기 윈도 10이 발매 예정인데도 이전 버전 사용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넷마켓셰어 자료에 따르면 웹에 접속하는 PC 중 윈도 8이나 8.1을 쓰는 기기의 비율은 16.8%에 불과한 반면 윈도 7이 시장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단종된 지 오래된 윈도 XP의 시장점유율도 17.2%로 윈도 8과 8.1을 합한 것보다 더 높다.

/이국명기자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9·11테러 13년 만에 우뚝 9·11테러로 무너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월드트레이드센터가 3일(현지시간) 정식 개관했다.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테러가 발생한 지 13년 만에 직장인들이 새로 둥지를 틀면서 기업 활동의 중심지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형 출판업체 콘드 나스트의 직원 170명은 이날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입주했다. /AP 연합뉴스

애플 아이폰6, 6플러스 출시국 추가

제품 수급 원활… 8개국

애플이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 출시국을 추가한다. 이번에 추가된 국가는 브라질, 필리핀을 포함 총 8개국이다.

4일 해외 IT전문 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애플은 11월14일(현지시간) 추가 8개국에서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 판매에 나선다.

애플의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는 지난 9월19일 첫 출시한 후 연말까지 115개국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애플은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의 1차 판매국으로 미국과 일본 등을 선정했으며 중국에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한국에서도 출시됐다.

이 매체는 14일에 추가로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출시될 국가는 브라질, 필리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레바논, 케냐, 나이지리아 등 8개국이라고 도보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는 각국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기록적인 판매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이폰6플러스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팀 쿡 애플 CEO는 아이폰6를 위탁 생산하는 대만 훙하이 정밀공업 산하 폭스콘에 대해 증산 장려금 의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장성훈기자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교향곡

지휘 서희태
연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소프라노 박미자
메조 소프라노 이아경
바리톤 김동규
테너 신동원

합창 서울시합창단

2014년 11월 27일(목) 8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metro
주관

후원 동국제약 목동병원 SPC KDB대우증권

티켓 P 20만원 VIP 15만원 R 10만원 S 7만원 A 4만원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공연문의 02-6292-9370

"찌는 살을 겨울옷이 감춰줍니까?"

건강한 다이어트 돕는 '뷰티푸드' 식재료 눈길

쌀쌀한 가을과 겨울철은 여름철에 비해 살이 찌기 쉽다. 밤이 길어질수록 우리 뇌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줄이는 반면 낮아진 기온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대사 작용이 활발해져 식욕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기온이 내려 갈수록 기초대사량이 증가해 같은 운동을 해도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어 겨울만큼 다이어트 하기에 좋은 계절도 없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뷰티푸드' 식재료들을 소개한다.

◆고단백 저열량 연어 등 생선류

다이어트 식단은 포만중추를 오랫동안 자극할 수 있는 단백질 섭취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콩, 두부 등 지방이 많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소고기·돼지고기·생선 등의 동물성 단백질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추천한다.

특히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세로토닌은 감정과 다이어트에 영향을 주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통곡물 등 건강한 '탄수화물'

또 다이어트 중이라고 해도 통곡물 등 건강한 탄수화물의 적당량 섭취는 필요하다. 탄수화물 부족이 장기화되면 우리 몸은 체내 단백질

손상을 줄이기 위해 체지방 분해가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케톤'이라는 대사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체내에 많아지면 혈액이 산성화되면서 메스꺼움, 탈수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신진대사 높여 지방연소 돕는 '물'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도 하루 6~8컵 정도 마시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물은 몸속 신진대사율을 높여 여분의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포만감을 주고 허기를 달래줘 공복감으로 인한 폭식을 예방한다. 생수를 휴대해 다니면서 매일 2ℓ 이상 마시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우지방·무설탕 제품 섭취는 기본

웰빙 트렌드 속에 지방·나트륨·설탕 등의 함량을 낮춘 '마이너스' 제품들은 이미 다양하게 출시돼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이런 흐름에 이어 최근에는 관련 성분들을 줄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뺀 '제로' 제품들도 속속 선보여 겨울철 다이어트족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모두 어느 비와 같이 음식물을 가려 먹는 것 만으로도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윤경일기자 yuno@metroseoul.co.kr

연말 겨냥 온라인 마켓 '할인 전쟁'

쿠폰 발행 깎아주기… "닫힌 지갑 열어라"

온라인 유통 업계가 연말을 앞두고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통해 특수 잡기에 나섰다. 굵직한 행사가 연말에 모여 있는 데다, 소비가 연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유통업계에서는 연말이 대목이다.

11번가는 11월 한 달간 '쇼킹딜십일절' 브랜드 강화를 위해 총 10억원 상당의 경품을 내걸었다. 매년 연중 최대 규모다. 모바일 앱에서 '쇼킹딜'을 외친 1등부터 1100등에게 11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전용 프로모션인 쇼킹할인쿼키몰렛도 상시 운영해 매일 오전 11시에 특정 상품에 한해 최대 99%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소셜커머스 티몬은 2만원 이상 구매하면 5000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몬스터 패션위크'를 오는 16일까지 실시한다. 아우터부터 이너웨어·액세서리까지 다양한 겨울 상품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위메프도 구입 금액에 따라 즉시 할인 받을 수 있는 '이쁘다 쿠폰'을 발행하고 있다. 6일까지는 '슈퍼 베이비페어'와 '슈퍼 3위크' 등 열고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롯데닷컴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겨울 왕국 캐릭터 가방을 예약판매한다. 또 캐릭터 가방을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 겨울왕국 캐릭터 문구세트와 '엘사' 피규어를 증정하며 선착순 150명에게는 뮤지컬 관람권을 제공한다.

업계 관계자는 "선물 수요가 가장 많고, 이 소비가 내년 설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유통업계에서 연말 행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김수정기자 ksj@

두뇌 촉진 '수능' 간식은…

에너지바·치즈·연어 등 도움

오는 1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수능 막바지에는 새로운 공부보다는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로 기억력과 집중력 등 두뇌 활동을 돕는 대표적인 영양소인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인 DHA, 오메가3, 비타민 E, 비타민 B 등을 함유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단백질은 두뇌 세포 형성에 필수적인 아미노산을 공급해 준다. 고도불포화지방산인 DHA와 오메가3는 주요 두뇌 영양소로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뇌의 정보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타민 E와 비타민 B는 불포화지방산의 기능을 돕고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DHA와 오메가3 지방산을 다량 함유한 에너지바, 시리얼 등의 견과류 간식과 연어 식품, 단백질 공급원으로 우유나 콩이 가공식품, 치즈, 두부 등이 수험생의 간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오리온의 '닥터유 에너지바'(사진)는 지난해 서울대 교내 매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간식으로 '서울대 에너지바'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아몬드와 땅콩 등의 견과류 덩어리로 크랜베리와 포도, 대두를 더해 두뇌 에너지 공급을 위한 영양들이 빈틈없이 채워져 있다. 제품 한 개로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E 등이 풍부한 견과류와 청산과 효과의 과일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다.

/윤경일기자

면역력 증진 곰탕 한그릇이면 감기 '뚝'

강강술래, 한우사골곰탕 1+1 행사
구이류 주문 양만큼 포장상품 증정

10도 이상 넘나드는 널뛰기 날씨에 감기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오는 14일까지 환절기 기력보충은 물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가정간편식 곰탕 1+1 행사를 벌인다.

전 매장에서는 곰탕 대용량선물세트(600㎖ 5팩 15인분)를 30% 할인된 3만8800원에 판매하며, 구매 때 소용량선물세트(350㎖ 5팩 10인분 2만2500원)를 덤으로 준다.

온라인쇼핑몰(sulla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은 통해선 곰탕 소용량선물세트(350㎖ 5팩 10인분)를 30% 할인된 2만2500원에 판매하며, 구매 때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조선청화(靑畵) 푸른빛에 물들다' 특별전 티켓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강강술래 곰탕은 방부제, 색소, 조미료 등을 넣지 않고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고 고소하다. 또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째 데워먹을 수 있어 조리도 매우 간편하다.

같은 기간 삼계·홍대 시흥·능곡 농원점에서는 소고기 구이류를 주문하면 한우불고기를, 돼지고기 구이류를 주문하면 돼지양념구이 포장상품을 주문한 만큼 무료 증정한다. 신림점은 소고기 구이메뉴 주문 때 한우불고기를 준다(해피아워·정식류 제외, 신림 시흥점 주중에만 진행).

또 행사기간 전 매장에서는 산타리타 비어로 카베네 쇼비뇽 와인 1병을 시키면 결제 시 산타리타 비어로 별도 와인 1병을 선물로 증정한다.

/윤경일기자

'미네랄 절임배추' 판매
해남농부, 친환경 재배

친환경 먹거리로 유명한 '해남농부'는 김장철을 맞아 미네랄과 퇴비를 섞어 친환경으로 재배한 미네랄 명품 절임배추를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배추는 농약 대신 이온미네랄을 투여해 배추 자체 면역력을 증가시킨 것이 특징이다.

전라남도 해남의 해풍을 맞고 자라 아삭아삭 씹히는 시원한 단맛이 일품이고 배추 고유의 향미와 당도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2년 이상 간수를 뺀 신안군 천일염과 체계적인 정수시스템, 150m 해수 암반수를 통해 100% 믿고 먹을 수 있는 절임 배추를 생산하고 있다. 20㎏(8~10포기) 3만5000원(택배비 포함). 문의 061-533-1438

"우리 아이 추울라"… 키즈용 방한용품 인기

보온성·스타일 잡는 기능성 제품 주목

예년보다 빨리 찾아 온 추위로 키즈용 방한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맞춰 패션업체들은 보온성은 물론 스타일까지 잡은 기능성 제품을 서둘러 선보이는 중이다. 제로투세븐 관계자는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 아이템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며 "입고 벗기 간편한 기모 소재 실내복, 다운점퍼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알로앤루는 서울점을 맞아 '마티점퍼'를 한정판으로 선보였다. 남아용 3종과 여아용 2종으로 구성됐으며, 가볍고 따뜻해 한겨울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스타일에도 신경을 썼다. 남아용의 경우 레드·오렌지 등 화사한 색상을 절개 배색으로 넣었고, 주머니 부분에는 캐릭터를 새겨 발랄함을 강조했다. 여아용 역시 하트 패턴의 안감과 주머니 부분의 리본 장식으로 아기자기함을 더했다.

섀르반의 '북극곰 다운점퍼'는 안감에 흡열 소재를 사용해 신체의 열을 보여 장시간 야외활동 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이의 안전을 고려한 디자인도 눈길을 끈다. 어두운 밤에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반사 소재인 3M 스카치라이트를 적용했다.

또 북극곰 나운점퍼라는 이름에 걸맞게 귀여운 곰인형을 달아 아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섀르반 측은 전했다.

포레즈의 '기모 아이템'은 톡톡하고 다양한 소재에 기모와 털 안감을 덧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보온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남아용 기모 데님은 단연 인기다. 여아용 제미 레깅스는 밍크 기모를 활용해 보온성을 높이고 포근한 느낌은 극대화했다. 포레즈 관계자는 "가을철에는 하나만 단독으로 입고, 추운 한겨울에는 패딩 베스트나 점퍼와 함께 코디하면 한결 따뜻하고 멋스럽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BYC, 보디히트 출시 기념 수능생 응원 캠페인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 BYC 2014년형 보디히트 출시 기념 수험생 응원 행사에서 모델들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대기 중의 적외선을 열에너지로 바꿔 스스로 열을 내는 솔라 터치 원사를 사용해 보온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BYC 제공

품격있는 문화 공연과 휴식을 동시에

호텔 패키지 가이드

가을의 낭만을 더할 문화 공연을 보면서 편안한 휴식도 만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즐거움이 다가온다. 특급호텔에서 선보이는 문화 공연 패키지를 소개한다.

먼저 이탈리아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의 정통 오페라 '아이다(AIDA) 1963'의 내한 공연을 후원하는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은 'The Present Opera AIDA 1963 패키지'를 선보인다. 객실에서의 1박과 아이다 1963 R석 2인 티켓, 그리고 프로그램 북 교환권이 포함된다. 이탈리아 레스토랑 베로나의 오페라 아이다 스페셜 코스 메뉴도 30% 할인된다.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과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은 미디어 아트로 반 고흐의 마스터 피스를 만나볼 수 있는 '반 고흐 10년의 기록 展'(사진) 티켓이 제공되는 패키지를 준비했다.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의 '반 고흐 러브 문화 패키지'는 스탠다드 객실 1박과 전시회 티켓 외에도 수영장과 야외 자쿠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부모와 동반하는 16세 이하 자녀에게는 아침 식사 무료 혜택이 주어진다.

또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은 객실 1박 숙박권과 전시회 티켓, 그리고 호텔 로비라운지&델리의 핫 초콜릿 음료 2잔 등으로 구성된 '별이 빛나는 밤' 패키지가 고객을 기다린다.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리프레쉬 인 더 줌' 을 운영한다. 투숙하게 되면 호텔의 자체 기획 공연인 반얀트리 누벨바그 공연 티켓 2매와 반얀트리 스파 20% 할인 쿠폰 등을 받을 수 있고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 클럽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은 뮤지컬 '황태자 루돌프' 공연 티켓이 포함된 패키지를, 제주신라호텔은 매혹적인 탱고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문라이트 탱고 디너 패키지'를 각각 마련했다.

/황재용기자

치과인들의 잔치 'IDEX'가 열린다!

14일부터 고양 킨텍스서

치과인들의 축제인 국제덴탈엑스포 IDEX 2014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IDEX는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치과업체를 비롯해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치과와 관련된 전문가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는 치과기재 전시회다.

특히 치과의사 등록자 전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무료로 제공되며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하는 할인 이벤트도 이어진다.

또 14일은 '딜러데이'로 진행돼 전시참가업체들과 전국 도·소매상들이 전시 현장에서 최대 50% 할인된 금액으로 치과재료를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행사 기간 중에는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를 위한 올해 마지막 보충 보수교육이 진행된다.

/윤자용기자

화장품업계 '뷰라보' 마케팅 활발

일러스트 작가·동물 등과 협업 제품 선봬

뷰티업계가 '뷰라보' 마케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뷰라보는 뷰티(Beauty)와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의 합성어다. 최근 유명한 일러스트 작가는 물론 심지어 동물(펫)까지 뷰티제품과 협업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티스트의 손길이 닿거나 콜라보레이션 한정판의 경우 소장가치가 있으며 소비 심리를 자극해 매출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소녀감성 코스메틱 브랜드 사라사라는 일러스트 작가 박만희와 손잡고 '플라워 케어리 테일' 라인을 선보였다.

화사한 꽃을 든 소녀의 모습을 패키지 전면에 담아 맑고 티없는 피부를 꿈꾸는 여성들의 로망을 표현했다. 플라워 케어리 테일 라인은 BB크림·CC크림·에어쿠션제품 등 총 11종으로 구성됐으며, 출시 이후 좋은 반응을 얻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고 사라사라 측은 설명했다.

뷰티 브랜드 나스는 제저 있는 컨템포러리 패션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필립 림과 함께 '필립 림 네일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번 네일 컬렉션은 필립 림이 평소 영감을 받고 즐겨 사용하는 시그니처 컬러들을 고스란히 재현했다.

슈에무라는 업계 최초로 고양이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 화제를 모았다.

세계적인 패션 거장 칼 라거펠트의 애묘로 유명한 '슈페트'가 그 주인공이다. 슈페트는 이미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서 수 만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을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패션 펫이다.

슈에무라는 슈페트의 아름다운 흰 털과 푸른 눈동자를 칼 라거펠트의 스케치로 담아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박지원기자

섹시 콘셉트 싱어송라이터 혼성 듀오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노래 부르는

JQ·한소아

지난달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뮤직비디오 한 편이 있다. JQ(본명 이재광)와 한소아(본명 박소아)의 '눈엔 눈 이에는 이'였다. '19금'을 넘어선 '29금' 타이틀이 붙은 이 뮤직비디오에서 JQ와 한소아는 노래는 물론 파격적인 연기도 했다. 섹시한 콘셉트가 넘쳐나는 요즘 가요계에서 화제를 모으기 충분한 영상이었지만 노래보다 선정적인 장면이 부각되는 것이 가수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 하지만 한소아는 "앨범에 도움이 된다면 괜찮다"고 말하며 소탈하게 웃었다.

◆ 남매 같은 두 사람

JQ·한소아의 '눈엔 눈 이에는 이'는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인 '블랙앤화이트스토리 에피소드'의 두 번째 노래다. 이들의 인연은 약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래 친분이 있던 두 사람의 콜라보레이션은 JQ의 "같이 한 번 음악을 해볼까"라는 말 한마디에 시작됐다.

JQ·한소아 '눈엔 눈 이에는 이' 뮤직비디오.

"지금은 같은 회사 소속이지만 예전에는 아니었다. 나는 걸그룹을 준비하던 중 내 음악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나온 상태였다. JQ가 프로젝트 앨범을 하나 해보자고 제안했다. 엄마 몰래 휴학하고 학비 500만 원으로 앨범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내가 작곡하고 JQ가 프로듀싱을 했다. 그게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인데 인소문을 타고 잘 돼 나름 '대박'을 쳤다. 그 이후로 노래를 하나씩 발표하기 시작했다."(한소아)

"'블랙앤화이트스토리 에피소드' 프로젝트는 반드시 우리 둘이 노래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첫 번째 싱글 '나쁜놈 나쁜놈 나쁜놈'과 두 번째 싱글 '눈엔 눈 이에는 이'는 한소아와 내가 했지만 매달 새로운 이야기로 앨범을 낼 계획이다. 프로듀싱은 내가 하지만 가수는 바뀔 수 있다. 회사에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외부 작곡가한테 노래를 받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만들기를 바란다(웃음). 농담이고 우리의 색깔을 담으려면 직접 노래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JQ)

◆ 섹시 콘셉트에 가려진 싱어송라이터

JQ와 한소아는 각자 확고한 음악 세계를 만들어 온 잔뼈가 굵은 뮤지션이다. 마니아층의 지지를 받으며 약 10년 동안 꾸준히 음악을 해온 두 사람이 '29금' 뮤직비디오로 화제를 모았다. '눈엔 눈 이에는 이'의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앨범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찍으려니 겁이 났다. 그래서 보드카를 조금 마시고 술의 힘을 빌려 찍었다. 촬영 시간만 거의 25시간이었는데 다 찍고 나니 멍이 들어있었다(웃음)."(한소아)

"나는 물도 맞아서 추웠다. 이번 프로젝트는 스토리텔링 형식을 띠고 있다. 나쁜 놈에게 상처받은 여자가 복수하는 과정까지 담았다. 음악계의 '사랑과 전쟁'이다(웃음). 그래서 나는 나쁜 놈을 연기했다. 사실 '뺨싸대기'도 맞았는데 편집돼서 안 나오더라. 한소아가 내 뺨을 때리는데 감정이 실려 있던 것 같다."(JQ)

"한번이 가마하니까 시원하게 때려줬다(웃음). '눈엔 눈 이에는 이' 뮤직비디오가 떴을 때 욕을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아니었다. 10년 동안 내 음악을 들어 온 오랜 팬들은 이제서야 빛을 본다고 좋아했다. 내 음악을 아는 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한소아)

"음악적 자신감이 있다. 이를테면 연기를 잘 하는 분들은 노출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력이 없는데 벗기만 하면 사라진다. 예전부터 해온 음악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29금'으로 화제를 모아도 당당하다."(JQ)

◆ 음악은 계속된다

인터뷰 내내 전은 방송인 못지않은 입담을 자랑하던 JQ는 우선 본업인 음악에 집중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송종국·박잎선 부부의 딸 송지아의 데뷔 싱글 '송지아 7'의 타이틀곡 '날 따라해봐요'를 프로듀싱했다. 앞으로 자신의 노래는 물론 다른 앨범도 맡으며 프로듀서로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이다.

"JQ는 일벌레다. 언제 연락해도 늘 작업실에서 음악 작업 중이다. 마치 소가 밭을 갈 듯이 하루에 작업 할당량이 있는 것 같다. 내가 JQ와 함께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음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한소아)

"타고난 재능이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스스로를 봐도 재능이 부족한데 노력이라도 많이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이렇게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축복같다. 우리의 음악을 더 많이 알리고 싶다. 그러려면 방송에 출연해야 할 것 같은데 인지도가 아직 낮아서 걱정이다(웃음)."(JQ)

/김지민기자 languam@metroseoul.co.kr 디자인/최송이

"노출 부담 걱정했지만 노래에 대한 자신감 있어"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축복"

가을 감성 물들일 아티스트들

7년 만에 토이로 돌아온 가수 유희열 '가장 십센치다운' 음반 발표 앞둔 10㎝

올 가을 감성을 어루만지는 음악을 들려줄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예고했다.

최근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 tvN '꽃보다 청춘' 등 방송가에서 종횡무진 활약 중인 가수 유희열(사진 왼쪽)은 오랜만에 토이로 돌아온다. 유희열 소속사 안테나 뮤직은 유희열의 원맨 프로젝트인 토이가 오는 18일 정규 7집을 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앨범은 지난 2007년에 발표한 정규 6집 '땡큐(THANK YOU)' 이후 7년 만에 나오는 앨범이다. 성시경·김동률·이적·다이나믹 듀오·선우정아 등 실력파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성시경과 이적을 제외한 나머지 아티스트들은 이번 앨범에서 토이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게 됐다.

최근 정규 7집으로 온라인 음원 차트를 석권한 김동률, 제11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음악인상과 최우수 팝 음반 부문을 수상한 보컬리스트 선우정아가 토이와 어떤 음악을 만들어 냈지 음악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힙합그룹 다이나믹 듀오는 기존 토이의 음악 색깔을 고려했을 때 파격적인 콜라보레이션 작품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시경은 토이 5집 '소박했던, 행복했던', 6집 '딸에게 보내는 노래'를 불렀으며 이적은 토이 5집 '모두 어디로 간 걸까'에 참여한 바 있다. 소속사는 "이번에 공개된 뮤지션 외에도 더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다"며 "새로운 조합의 보컬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귀띔했다.

남성듀오 십센치(10㎝·오른쪽)도 오는 19일 정규 3집 '3.0'으로 돌아온다. 이번 정규 3집은 지난 2012년 발표한 2집 '2.0' 이후 2년 만에 선보이는 음반으로 십센치가 소속사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로 이적한 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앨범이다.

십센치는 이번 앨범에서 한층 세련된 모습으로 새로운 이미지에 도전한다. 소속사 측은 "멤버 권정열과 윤철종은 19일을 컴백 날짜로 확정하고 준비에 여념이 없다"며 "오랜만에 내는 정규 앨범인 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십센치다운 음반으로 평가할 만큼 그들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음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시은기자

양희은, 이적과 함께 신곡 발표

"44년차 가수의 음악도 들어주시길"

가수 양희은이 윤종신에 이어 이적과 손을 잡았다.

양희은은 5일 정오 이적과 함께 작업한 새 디지털 싱글 '꽃병'을 발표한다. '꽃병'은 양희은의 싱글 프로젝트 '뜻밖의 만남'의 두 번째 곡이다.

양희은은 지난달 윤종신과 함께 작업한 첫 번째 싱글 '배낭여행'을 발표한 바 있다. 약 3년 동안 새 앨범을 발표하지 않았던 양희은은 정규 음반 출사를 앞두고 후배 뮤지션들과 작업한 곡들을 싱글 프로젝트로 수시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꽃병'은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작사·작곡한 노래다. 지나간 시간들과 꽃병에 대한 기억을 그리며 '꽃만 보면 마음이 아프다'는 내용을 담았다. 피아노 연주와 편곡은 건반 정재일이 맡았다.

신곡에 대해 양희은은 "이번 노래는 사랑의 여러 얼굴 중 하나란 생각이 든다"며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아주 케케묵은 사랑이야기도 있다. 옛날식 사랑이 있으면 신식 사랑도 있는 것처럼 사랑의 가치관도 오랜 세월에 따라 변해 왔다. 그래도 사랑은 늘 같은 명제로 다뤄진다. 각자 가진 사랑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노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노래 하나로 이적에게 큰 빚을 졌다"며 "아이돌 음악뿐만 아니라 44년차 가수의 음악도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적은 "듣는 분에 따라 다르게 들릴 노래"라며 "여러 가지 생각에 젖는 분도 있을 것이고 조금은 촌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들어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펼쳐지리라 생각한다. 사랑 노래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양희은 선배가 부르길 바라며 쓴 곡이다.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가영기자 lanakim@metroseoul.co.kr

가수 양희은이 5일 정오 후배 가수 이적과 함께 작업한 새 디지털 싱글 '꽃병'을 발표한다. /유담엔 제공

박지윤 '오만과 편견' OST 참여

조형우와 함께 한 러브송 '제넘고정'

가수 박지윤(사진 왼쪽)과 조형우(오른쪽)가 호흡을 맞췄다.

4일 박지윤의 소속사 미스틱89는 "박지윤과 조형우가 함께 부른 MBC 월화드라마 '오만과 편견'의 두 번째 OST '제넘고정'의 음원이 오는 11일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만과 편견' 3회에 처음 등장한 '제넘고정'은 달콤한 멜로디의 러브송이다. 앞서 공개된 첫 번째 OST 에디킴의 '하루 하나'와 함께 구동치(최진혁 분)와 한열무(백진희 분)의 배경 음악으로 사용됐다.

박지윤은 최근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에 마리아 역으로 캐스팅돼 연습 중이다. 조형우는 첫 번째 미니앨범 '힘(HIM)'을 발표하고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시은기자

"소지섭, 팬서비스도 특급이네~"

'소 러브' 싱글·뮤직비디오 무료 공개

배우 소지섭이 4일 오전 11시 싱글 '소 러브'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무료로 공개했다. 팬들을 위해 마련한 '특급 선물'이다.

소지섭의 이번 무료 음원 공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 첫 번째 아시아투어 '소지섭-2014 댓츠 러브 콘 인 아시아'의 대장정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뤄졌다.

소지섭은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대만·일본·태국·홍콩·중국·싱가포르·한국 등 아시아 7개국을 돌며 팬 미팅을 열었다. 이를 통해 느낀 팬들에 대한 남다른 마음을 새 싱글에 담았다.

'소 러브'의 제작에는 유명 힙합 그룹 소울 다이브와 DJ주스, 샛별 등이 노 개런티로 참여했다. 소울 다이브는 소지섭과 함께 싱글 앨범 '6시 운동장', '18 어어즈'에서도 공동 작업을 해왔다. 가수 샛별과 DJ주스는 각각 피처링과 작곡을 맡아 힘을 보탰다. 함께 공개한 뮤직비디오는 노래를 준비하는 녹음실 현장과 아시아 7개국 투어 당시 무대 뒤 소지섭의 모습 등을 담았다.

소속사 측은 "소지섭 특유의 중독성 있는 래핑과 샛별의 감성 있는 보이스가 어우러져 색다른 느낌의 곡이 탄생했다"고 전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

새 싱글 '소 러브'를 발표한 가수 소지섭과 힙합 그룹 소울 다이브. /51K 제공

용감한 작가들

방송의 민낯을 까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

E channel

심야 예능 '지각 변동' 초읽기

'룸메이트' '즐거운 家', '예체능' '라디오스타'와 대결

지상파 심야 예능 판도 변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요일 오후에 방송됐던 SBS '룸메이트'와 '즐거운 가(家)'가 각각 화요일·수요일 오후11시로 편성을 변경한 것이다. 이로써 '룸메이트'는 KBS2 '우리동네 예체능'과, '즐거운 가'는 MBC '라디오스타'와 경쟁한다.

◆ 화요일 - 공감 vs 대결

현재 화요일 지상파 예능 1위는 '우리동네 예체능'이다. 테니스 편의 경우 성시경·이재훈·정형돈 등 스타들과 한국 최초 ATP투어에서 우승한 이형택 선수, 대한민국 최초 윔블던 주니어 세계 2위를 기록한 전미라 선수가 코치로 합류했다. 재미와 전문성이 어우러져 경기에 긴장감을 준다는 분석이다. 또 스포츠 대결로 팀워크를 다지며 감동도 선사하고 있다.

'룸메이트 시즌 2'는 '우리동네 예체능'과의 대결에 맞서 '공감'을 내세운다. 멤버들은 서로의 재능과 관심사를 알아 가며 단순히 공간을 공유하는 것 이상으로 공감 지수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웃과 나누고 즐기는 멤버들의 모습과 24시간 촬영으로 보여지는 연예인의 일상, 시즌2에 새로 합류한 박준형·씨니 오타니·요헤이·잭슨의 예능감이 프로그램에 재미를 더한다. '미직아이' 후속으로 오는 25일부터 방송된다.

◆ 수요일 - 리얼 vs 토크

'즐거운 가'가 방송 시간을 옮기면서 수요일 예능은 리얼리티와 토크쇼로 경쟁하게 된다. '즐거운 가'는 마음 편 곳을 골라 출연진이 직접 집을 짓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농작물을 수확하고 가축을 기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일요일 오후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김병만·이재룡·손창의·장동민·정겨운·이민혁·민이 등 일곱 명의 출연진은 스마트폰 없이 등뱀이 하나만으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특히 나만의 집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시청자에게 슬로우 라이프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오는 12일부터 방송될 예정이다.

그러나 '즐거운 가'와 마주할 MBC '라디오스타'는 막강한 저력을 지니고 있다. 수요일 밤마다 방송 직후 국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라디오스타' 출연진으로 가득하다. 게스트에 따라 시청률이 좌우되는 토크쇼의 한계에도 오랜 기간 선전하고 있다. 리얼예능이 대세인 현재, '즐거운 가'가 토크쇼와의 대결에서 앞설지 주목된다.

/전효진 기자 jeonhj@metroseoul.co.kr

'발레리노'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연출진 라인업 기대감↑

영화 '발레리노'가 MBC드라마넷을 통해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발레리노'는 드라마 제작사 제이에스픽쳐스가 처음 제작하는 영화다.

4일 제이에스픽쳐스의 한 관계자는 "'발레리노'의 편집이 확정됐다"며 "조만간 믹스팅을 마무리하고 공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품은 팔복 청년이 스타 발레리노를 만나 우정을 나누며 진정한 무용수로 성장하는 이야기다. 그라마 '뉴하트' '일보다 낭'지 신의퀴즈4' 의 이민우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성신여대 무용예술학과 김순정 교수가 예술감독으로 참여하고 유니버설발레단이 협력해 작품 완성도에 대한 기대가 높다.

TV영화 '발레리노'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 2014년 선정작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지원을 받아 제이에스픽쳐스와 아산나 공동 제작한다.

/전효진 기자

'괜잖아 팬이잖아' 특급 서비스

조인성, 팬미팅 개최 - "내년에 또 만나요"

배우 조인성(사진 왼쪽)이 특급 팬서비스로 팬 미팅 현장을 달궜다.

조인성은 지난 2일 열린 '2014 조인성 팬미팅'에서 공식 팬클럽 '인성군자' 회원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서 조인성은 객석 뒤에서 등장하는 이벤트로 팬과 일일이 악수하며 무대로 내려왔다. 배우 김기방의 진행으로 시작된 팬 미팅은 최근 종영된 '괜찮아 사랑이야' 특집판으로 꾸며졌다.

조인성은 팬이 준 선물을 풀어보며 근황과 '괜찮아 사랑이야'의 후일담을 나눴다. 관객의 질문을 받아 답하는 시간에서는 극 중 역 소 도경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가끔 한강우가 보여"라고 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도경수는 작품에서 조인성이 분한 장재열의 또 다른 자아 한강우 역을 맡았다.

조인성은 '괜잖아 스킨십이야'라는 코너를 통해 이마 뽀뽀·백허그·손깍지 등 작품에 등장했던 애정표현을 팬과 함께 재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배우 이광수가 깜짝 등장해 조인성 팬미팅을 축하했다.

이후 조인성은 DJ 장재열로 변신해 팬의 사연을 읽고 상담해주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코너를 진행했다. 조인성을 자신의 남자친구로 믿고 있다는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배우를 꿈꾸는 19살 학생, 작년 팬 미팅 이후 암에 걸렸지만 긍정 마인드를 잃지 않는 한 팬의 사연까지 조인성은 모든 고민에 애정있는 조언을 하며 팬과 소통했다는 후문이다.

그는 이날 '조인간 빠의 팬에게 인사할 여정'이라며 "국내 팬을 먼저 만나게 돼 참 다행이다. 내년에 또 만나자"고 소감을 전했다.

조인성은 현재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전효진 기자

김영광 새 소속사 찾았다

'피노키오' 주연 - "배우로 도약할 것"

배우 김영광(사진)이 새 소속사 엔피노와 계약했다.

4일 엔피노 측은 "모델 출신 배우가 트렌드로 자리 잡는 데 공을 세운 김영광이 배우로서의 입지를 더 다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이라고 영입 소감을 전했다.

김영광도 "연기력으로 인정 받는 배우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며 "새로운 회사에서 할 도전들에 나 또한 설렌다"고 말했다.

김영광은 엔피노 이적과 함께 SBS 새 수목드라마 '피노키오' 주연으로 합류해 촬영에 한창이다. '피노키오'에서 어릴 때부터 부족한 것 없이 살아온 재벌 기자 서범조로 분해 이종석·박신혜·이유비와 호흡을 맞춘다.

배우로서의 도약을 다짐한 그가 작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 기대가 높다. 작품은 오는 12일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후속으로 첫 방송될 예정이다.

한편 김영광의 새 소속사 엔피노는 영화 제작을 비롯해 콘텐츠 기획·제작·유통·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 나갈 회사다.

/전효진 기자

film review

■패션왕

'병맛'과 감동 속 길을 잃다

비현실적인 분위기와 현실 문제의 어색한 조합

웹툰이 영화의 소재로 각광 받았던 것은 스토리텔링의 힘 때문이었다. 강풀, 윤태호 작가처럼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웹툰들이 가장 먼저 영화로 제작된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웹툰의 영화화는 늘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관객의 관심은 원작과의 싱크로율에 있었고 그것이 웹툰 원작 영화의 발목을 잡았다.

그런 점에서 작가 기안84의 웹툰 '패션왕'의 영화화 소식은 의외였다. 앞서 영화화된 웹툰들이 탄탄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반면 '패션왕'은 소위 말하는 '병맛' 코드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병맛'은 '병신 같은 맛'의 줄임말로 위키백과의 설명에 따르면 "정확한 의미를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어떤 대상이 '맥락 없고 형편없으며 어이없음'을 뜻하는 신조어"다. 엉뚱한 캐릭터와 말도 안 되는 유머만으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이 웹툰을 어떻게 영화화할지 궁금했다.

영화는 '선물' '작업의 정석' '이별계약' 등 주로 멜로영화를 만들어온 오기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배우 주원이 주인공 우기명 역을 맡았으며 안재현·설리·박세영 등 젊은 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어떤 셈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고등학생 우기명이 '간지(멋이라는 뜻의 유행어)'를 통해 패션 리더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렸다.

영화 전반부는 웹툰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곳곳에 녹아든 병맛 코드가 눈에 띈다. 특히 학교에서 펼쳐지는 학생들의 각양각색 패션 대결은 원작 못지않은 웃음을 선사한다. 우기명의 라이벌인 김원호(안재현)가 '간지폭풍'을 맞으며 하늘을 나는 장면은 원작의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장면이다.

그러나 영화는 모델 선발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는 후반부부터 원작과 다른 길을 걷는다. 원작 팬이라면 궁금해 할 '늑대인간 변신'과 같은 극한의 '병맛' 코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왕따와 이지메를 겪던 우기명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그 빈자리를 채운다. 원작 특유의 비현실적인 분위기가 왕따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와 어색하게 섞여 있다는 느낌이 든다.

'패션왕'이 원작의 병맛 코드를 살리면서도 원작에 없던 감동을 넣은 것은 상업적으로 안정적인 길을 가고자 하는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선택이 오히려 영화의 완성도를 흐트러뜨린다. 의미보다는 피상적인 웃음 자체에 집중하는 병맛 코드와 삶의 의미를 강조하는 감동은 애초부터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기 때문이다. 영화의 주요 타깃층인 10대 관객에게 지나치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 15세 이상 관람가. 11월 6일 개봉.

'개를 훔치는…' 12월 개봉

김혜자·강혜정·이레 주연 코미디

영화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감독 김성호)이 오는 12월 개봉을 확정했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사라진 아빠와 집을 되찾기 위해 개를 훔치려는 열 살 소녀의 기상천외한 도둑질을 그린 코미디 영화다. '마더' 이후 5년 만에 스크린에 돌아온 김혜자를 비롯해 강혜정·최민수·이천희, 그리고 아역 배우 이레 등이 출연한다.

12월 개봉 확정과 함께 티저 포스터와 예고편도 공개됐다. 티저 포스터는 영화에 등장하는 개 월리와 강아지 인형들의 모습을 담아 호기심을 자극한다.

티저 예고편은 등장인물들이 개를 훔치기 위한 완벽한 작전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장면들로 긴박감을 전한다. '소원'으로 주목 받은 이레를 비롯해 이지원, 홍은택 등 아역 배우 3인방이 펼치는 치밀한 작전이 담겨 있어 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만든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은 영미권의 대표적인 작가인 바바라 오코너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소설은 국제독서협회 선정 2008년 지구촌 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책, 전미 학부모 선정 패런츠 초이스 골드 어워드 등을 수상했다. '거울 속으로' '무서운 이야기2'의 김성호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장병호기자

이정재의 '화난' 복근

'빅매치' 촬영 5개월 전부터 액션 훈련

영화 '빅매치'(감독 최호)가 주연 배우 이정재(사진)의 복근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틸을 공개했다.

'빅매치'에서 이정재는 형을 구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미션을 깨쳐 나가는 불굴의 파이터 최익호 역을 맡았다.

평소에도 근육질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로 잘 알려진 이정재는 극중 최익호를 더욱 완성도 있게 그리기 위해 촬영 5개월 전부터 액션 훈련에 돌입했다. 또한 역할에 맞는 복싱, 레슬링 등 운동 뿐만 아니라 벌크업과 식단 조절을 병행해 완벽한 파이터로 변신했다.

'아저씨'로 잘 알려진 박정률 무술감독은 "이정재는 무술과 기초 체력운동 뿐만 아니라 근육 트레이닝을 따로 받을 만큼 열정이 많았다. 항상 파스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열심히 했다. 액션배우로서의 소질이 다분해서 놀랐다"고 전했다.

'빅매치'는 도심 전체를 무대로 천재악당으로부터 형을 구하려는 주인공 최익호의 무한질주를 그린 액션영화다. 오는 12월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카체이싱 액션의 귀환

'분노의 질주7' 내년 4월 개봉

카체이싱 액션 블록버스터 '분노의 질주: 더 세븐'(이하 '분노의 질주7')이 내년 4월 개봉을 확정했다.

'분노의 질주'는 지난 2001년 첫 작품을 시작으로 2013년 '분노의 질주: 더 맥시멈'까지 12년 동안 6편의 작품을 내놓은 시리즈다. 그동안 23억8000만 달러(한화 약 2조5080억 원)의 흥행 수익을 기록했다.

'분노의 질주7'은 부제인 '더 세븐'에서 알 수 있듯 막강한 7명의 주인공들을 예고하고 있다. 핵심 멤버인 빈 디젤, 폴 워커, 드웨인 존슨을 비롯해 미셸 로드리게즈, 타이레스, 루다크리스, 조다나 브류스터가 함께 한다.

특히 '분노의 질주7'은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폴 워커의 유작으로 영화 팬들의 관심이 높다. 기존 시리즈에 출연한 오리지널 멤버들과 함께 액션 배우 제이슨 스타뎀이 새롭게 합류해 더욱 강력해진 라인업을 구축했다.

영화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미국 콜로라도와 조지아, 캘리포니아, 캐나다 토론토, 일본 도쿄 등 동서양을 넘나드는 전 세계 로케이션으로 다채로운 영상을 담았다. 시리즈를 대표하는 카체이싱과 속도감 있는 액션이 스크린에서 펼쳐진다. /장병호기자

만성 폐질환 환자들이 찬 공기를 이시에 되면 기도가 좁아지는 기관지 수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날씨에서는 보온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www.paik.ac.kr)

캣우먼 사귈때마다 작은 일에 상처받는데… 진정 좋아한다면 자존심은 버려라

칼럼니스트

Q Hey 캣우먼!

세 번의 연애 경험을 지닌 37살 남자입니다. 자존심이 너무 강해 연애 중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나 복수로 보상받길 원합니다. 또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면 대부분 제 잘못으로 결론나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저를 예전만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상대방이 미워집니다.

이런 문제들로 상대에게 상처 주는 일이 늘고 저는 연애 두세 달이 지나면 항상 심한 자괴감에 빠지고 이별 후엔 자괴감이 극에 달하고요. 이별 후엔 다시 만나달라고 애원 후 재회해도 얼마 안 가 제 자신에 또 이별을 선언해요. 상대를 두 번 죽이는 남자인 저는 여자들이 피해야 할 나쁜 남자일까요? /사춘기 소년

A Hey 사춘기 소년!

자존심이 강한 건 그만큼 콤플렉스가 많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좋아할 때 자존심은 방해만 될 뿐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 화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복잡한 응어리나 분노가 들면 여자친구에게 투사돼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죠. 자신의 못마땅한 점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따금 말로는 스스로를 부정해도 실천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렇게 해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말은 안 고쳐지는 게 아니라 고칠 마음이 안 생기는 거니까요.

어쩌면 내가 여자친구에게 못되게 굴 때나 여자친구가 내게 매달리거나 이별 후 다시 그녀들이 나를 받아줄 때 그 기분을 은근히 즐기는 나 자신이 있지는 않은지 솔직하게 자문해봐야 합니다. '난 이렇게 나빠' 같은 자학을 가장한 자아도취를 즐기는 측면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반복되는 패턴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스스로를 과대평가, 과소평가도 말고, 나의 콤플렉스의 근원을 찾으면서 정말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캣우먼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5			
	2	7			4	5		
						6		2
	9					2	7	4
				1				
6	7	2					8	
8		3						
		6	9			7	1	
			8					5

	9		1	6		8		
5				7				1
		8				6		
3	5							
	2	1	3		5	7	4	
							3	2
		7				2		
2				9				6
		6		5	1		9	

스도쿠 정답

문제제공 - 보누스
연사 스도쿠 프리미어 (제티 고든 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 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문과 생각하다 약대 도전 잘될까요 손재주 있어 능력발휘 가능합니다

Q 태두산산 남자, 89년 10월 13일 19시

저는 조기기 재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문과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 이과나 약대 쪽으로 갈려고 합니다. 전공과목을 택하고 직업을 선택 할 때 과목을 부러서 인기 있는 직종을 무조건 택하거나 대학생이 되기 위해 이유도 없는 과를 선택해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전과를 하거나 편입시험을 치르게 되는 불운을 겪는 것을 보아 왔기에 걱정입니다. 성미에 맞고 전망이 좋으며 사회를 봐도 합격이 될 수 있으며 생을 꾸려나가는 데 써먹을 수 있는 전공과목이 되려면 약대를 선택해도 좋을 런지요.

A 조카 분은 조목이 불붕 만난 격으로 운기가 회망하며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의식주가 풍부한 사주입니다. 일귀(日貴)를 생일지에 천을 귀인 이라는 길운이 들어 있으니 남의 도움도 크게 받는 인덕이 있는 사주입니다.

전공을 택할 때 참고 할 것은 흥정을 쏟을 수 있는 분야인지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습관이나 공부를 해온 결과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시 직업과는 전혀 상관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로만 간다거나 막연한 직업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대체로 잘하는 선택은 아니겠지요.

환경적인 요소와 사주를 참고하여 운에서 어느 직종이 잘 나갈 수 있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생일지에 현침살(날카로운 기능을 나타내는 부호)을 이루고 있어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손재주가 좋아 의료인, 엔지니어, 제약인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관인은 사회적인 공부를 상징하는데 이 공부는 단순한 수학, 국어, 역사, 경제 등의 공부가 아니라 독특한 재능을 발휘하는 공부를 암시하므로 약학과로 전공을 택하는 것은 대체적 무난합니다.

2014년(甲午年)은 책을 읽을 수 있으니 어이 10월(책월 亥月)로 가니 다음 해인 내년을 본다면 을미(乙未)년은 형살(刑殺)이 작용 하여 흠을 얻기가 어렵고 2016년은 길운의 해가 되니 분발하십시오. 그것은 계수(癸水)라는 비가 오는 구름이 병화(丙火)라는 태양을 보게 되니 시흠에 결과가 좋게 다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운의 흐름을 보고 말하는 것이므로 다소 혼들리고 어렵더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1월 5일 (음 윤9월 13일) 김혁수 인상상담

쥐 48년생 영킨 실타래 푼 격이다. 60년생 동료와 힘을 뭉쳐 세를 몰 짜라. 72년생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면 잃는 게 많다. 84년생 헷갈리는 일은 주변의 의견 구하라.

소 49년생 아랫사람 허물을 모른 척 할 것. 61년생 갑자기 좋은 일을 도망 일이 생긴다. 73년생 발목 잡는 툭박꾼을 경계하라. 85년생 길은 막히나 숫어날 구멍은 있다.

호랑이 50년생 돈 아끼려다 망신당한다. 62년생 여유가 생겼을 때 너무 박풀어라. 74년생 귀가 번뜩하는 중요한 정보 온다. 86년생 구직자는 취업산중이니 마음 비워라.

토끼 51년생 고진부리면 따돌림 자초~ 63년생 초반의 어려움만 넘으면 된다. 75년생 모를 편 꺼든 어려운 듯~ 87년생 인터넷으로 쇼핑은 사기 등 조심할 것.

용 52년생 곳돈이 생겨 한턱 쏜다. 64년생 정직한 실수는 약이 된다. 76년생 잘 나갈 때 겸손 하라는 말 명심~ 88년생 고득자택이 생각도 못한 큰돈 선물한다.

뱀 53년생 곤란한 일 등 따라는 배우자 알았구나. 65년생 기우에 단비가 다린 격이다. 77년생 배우자에 신경 너 써라. 89년생 마음을 받아주는 연인에 고맙다.

말 42년생 대단한 방방 써이 난게 좋겠다. 54년생 외부의 변수를 조심할 것. 66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되어 기쁘다. 78년생 인간과 번방의 기지에 주목하라.

양 43년생 심심할 정도로 무탈한 하루~ 55년생 박수 받을 일이 생긴다. 67년생 작은 선물에 산삭 그 이상 행복을 주는구나. 79년생 판을 하는 친구가 밉겠다.

원숭이 44년생 거짓말은 곧 드러난다. 56년생 한번 등끌린 사람은 정지 말라. 68년생 영업사원 단연 돋보이는 성과 오린다. 80년생 상사의 충고는 적극 수용할 것.

닭 45년생 남의 공 흠쳐을 내지 말라. 57년생 자녀가 희소식을 전한다. 69년생 줏대 없어 이곳에 끌려다니지 말라. 81년생 궁리이 최고의 뿌어책이다.

개 46년생 천번신재 면할 기회가 온다. 58년생 일이 달뒤판 사람은 권리적라. 70년생 좋은 아닌나 뒷맛은 씁쓸하다. 82년생 마음이 있으면 회사게 들어대라.

돼지 47년생 추종자 말 너무 믿지 말 것. 59년생 용기 있는 도전이 필요하다. 71년생 마음은 있으나 여건이 따르지 않구나. 83년생 사소한 일에 마음이 상한다.

차우찬 내린 강정호의 8회 2점 홈런

[illegible] 1차전에서 [illegible] 히어로즈가 먼저 승리를 따내 며 전통의 강호 삼성 라이온즈를 맞아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넥센은 4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2014 한국야구르트 세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7전4선승제) 1차전에서 4-2로 승리했다. 8회초 터진 강정호의 투런 홈런이 경기에 쐐기를 박았다.

플레이오프에서 타율 0.533, 2홈런, 4타점, 5득점을 기록해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던 강정호는 이날 결승홈런을 포함해 3타점을 올려 1차전 MVP로 선정됐다. 20승 투수 앤디 밴 헤켄은 6이닝 3피안타 2실점 호투로 제 몫을 다 했고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선 조상우가 2이닝을 퍼펙트로 막아 구원승을 가져갔다.

삼성은 선발 투수 릭 밴덴헐크의 6⅓이닝 5피안타 2실점 호투를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졌다. 이날 마운드에 오른 삼성의 투수진은 사사구 7개를 기록했다.

선제점은 넥센이 따냈다. 넥센은 3회초 선두타자 서건창이 우중간 3루타로 출루하면서 무사 3루 기회를 잡았다. 이어 타석에 선 로티노가 2루타를 쳐내 1-0 리드를 잡았다. 유한준의 볼넷과 박병호의 우익수 플라이로 이어간 1사 1,3루 기회에서 강정호가 중견수 방면 희생 플라이로 2점째를 뽑았다.

삼성은 곧바로 나바로의 2점 홈런 한 방으로 균형을 이뤘다. 3회말 무사 1루 상황에 등장한 나바로는 우중간 와야 관중석에 떨어지는 투런포로 2-2 동점을 만들었다.

두 팀은 7회 나란히 선발 투수를 마운드에서 내렸다. 넥센은 조상우가 배턴을 이어 받았고 삼성은 차우찬이 나섰다. 팽팽한 불펜전에 강정호가 해결사로 나섰다. 선두타자 박병호가 몸에 맞는 볼로 1루를 밟았고 강정호는 무사 1루에서 차우찬의 바깥쪽 낮은 슬라이더를 걷어올려 좌측 펜스를 넘기는 투런 홈런을 때려냈다.

4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넥센 히어로즈가 강정호의 2점 홈런에 힘입어 삼성 라이온즈를 4-2로 제압하며 1승을 챙겼다. /연합뉴스

승기를 잡은 넥센은 8회 조상우와 9회 손승락의 호투로 2점차를 지켜냈다.

한편 역대 31차례의 한국시리즈에서 1차전 승리팀이 우승한 경우는 24차례로 우승 확률 77.4%다. 한국시리즈 2차전은 5일 오후 6시 30분 대구구장에서 열리며 삼성은 윤성환, 넥센은 헨리 소사를 선발투수로 예고했다.

/김학철기자 kimc0304@metroseoul.co.kr

프로야구 전적 (4일)

■ 대구

넥센	002	000	020	4
삼성	002	000	000	2

[illegible]

FIFA 카타르월드컵 겨울에 열기로

1월 올림픽, 11월 유럽 챔피언스리그 일정 고심

국제축구연맹(FIFA)이 카타르에서 개최될 2022년 월드컵을 겨울에 열겠다는 의견을 모아 내년 3월께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한다고 전했다.

FIFA는 집행위원회 2차 회의에서 카타르월드컵을 1~2월에 개최하는 1안과 11~12월에 여는 2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제롬 발케 FIFA 사무총장은 4일(이하 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실무진 회의 결과를 밝혔다.

제롬 발케 사무총장은 "우리는 어떻게 카타르월드컵의 겨울 개최로 가닥을 잡았다. 1월 개최와 11월 개최 두 가지 안을 빠르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P통신은 4일 "FIFA가 2022년 카타르월드컵의 겨울 개최를 둘러싼 여러가지 방안을 두 가지 안으로 좁히고 내년 3월에 개최 시기를 확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카타르는 여름 한낮 기온이 50℃에 가까운 폭염으로 기존 처럼 6~7월에 월드컵을 치를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FIFA 의료진은 실무진 회의에서 카타르월드컵이 5~9월에 열리면 선수, 지원인력, 관중이 건강을 해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럽축구연맹과 유럽클럽협회는 프로 시즌 경기가 열리는 일정을 피한 4~5월 밤에 대회를 열자고 요구했고 FIFA는 이슬람 금식월인 라마단을 이유로 4~5월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년 라마단은 4월2일부터 시작되며 일부 선수들이 대회 출전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제롬 발케 [illegible] 사무총장은 4일(한국시간) [illegible] 월드컵을 겨울에 열겠다는 의견을 모아 내년 3월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AP뉴시스

결국 FIFA 측은 한여름을 피한 겨울 시즌인 1월과 11월 두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 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단 그해 2월에는 동계올림픽 개최가 예정돼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동계 종목 국제연맹들은 올림픽과 기간이 겹치는 2022년 1~2월에 월드컵을 여는 방안을 반대하고 있다.

11월 개최는 위해서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와 유럽 프로축구의 각종 리그 주요 경기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럽 프로축구 클럽과 유럽축구연맹은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해 주요 경기들이 일제히 열리는 11~12월을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한편 당초 여름 개최를 고수하던 카타르월드컵 조직위원회는 입장을 바꿔 FIFA가 의견을 수렴해 개최 시기를 결정하면 그에 맞춰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월드컵 채화를 유치할 당시 카타르는 경기장 곳곳에 냉방기를 설치해 여름 월드컵 관례를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남겼다. /김학철기자

배상문, 신한동해오픈 2연패 도전

김승혁·박상현·김우현 상금·다승왕 경쟁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챔피언 배상문(28·캘러웨이 사진)이 한국프로골프(KPGA) 시즌 마지막 대회에 출전한다.

배상문은 오는 6일부터 나흘간 인천 송도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파72·7320야드)에서 열리는 신한동해오픈(총상금 10억원)에 나서 이 대회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미국 무대에 진출한 뒤 지난해 바이런 넬슨 챔피언십과 올해 프라이스닷컴 오픈을 제패한 배상문은 지난해 신한동해오픈에서 우승한 디펜딩 챔피언이다.

배상문의 한국 방문은 지난 5월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 출전한 이후 5개월여만이다. 당시 32강전에서 탈락했지만 PGA 투어 2014-1015 시즌 개막전인 프라이스닷컴 오픈에서 우승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국내 대회에 나선다.

배상문은 신한동해오픈 타이틀 방어에 나서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선수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 시즌 한국오픈을 포함해 국내 투어에서 2승을 올린 김승혁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도카이클래식에서도 우승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김승혁은 시즌 상금 5억4800만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총상금 10억원에 우승 상금 2억원이 걸린 이번 대회마저 우승하면 생애 첫 상금왕을 바라보게 된다.

상금 랭킹 2위(4억1900만원)인 박상현(31·메리츠금융그룹)도 우승만 한다면 김승혁의 결과에 따라 상금왕에 도전할 수 있다.

최우수 선수에게 주는 발렌타인 대상 부문의 경쟁도 치열하다. 이 부문에서는 올 시즌 나란히 2승씩을 나눠가진 박상현과 김승혁, 김우현(23·바이네르)이 1~3위에 포진했다. 박상현은 3260점, 김승혁은 3063점, 김우현은 2700점이다. 이 대회 우승자에게 1000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순위는 바뀔 수 있다.

한편 신한동해오픈은 올해로 30회를 맞았다. 아울러 에이지대회로 승격돼 우승자에게는 5년간 국내 투어 출전권을 준다. /김학철기자

프로농구 전적 (4일)

KCC	12	25	12	21	7[illegible]
전자랜드	[illegible]	13	[illegible]	21	[illegible]

프로배구 전적 (4일)

현대건설	3	1	IBK기업은행
한국전력	3	0	현대캐피탈